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7730.82	코스닥	951.63
	(-366.11)		(-16.18)
금리 (연고채 3년)	3.881	환율 (원/달러)	1528.05
	(+0.025)		(+15.95)

metro® 경제



GNI 뛰었는데... 체감은 냉랭 '3高의 늪'

(국민총소득)

한은, GDP 전년비 3.8% ↑ 실질 GNP 13.2% 늘었지만 3%대 물가상승, 고금리 등 국민들 체감경기 괴리 커져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 숫자와 국민 체감경기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과 국민소득 지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고환율과 3%대 물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쳐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다.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더 크게 뛰었다.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9.2%,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명목GNI도 전기 대비 11.0%, 전년 동기 대비 17.1% 늘었다.

GDP가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낸다. 1분기에는 생산 증가뿐 아니라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서 소득 지표가 성장률보다 더 크게 개선됐다.



'투표용지 부족' 현장검증 물증확보 실패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 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10일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투표소는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뉴시스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소득

이번 지표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분기 성장률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속보치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 기기를 중심으로 생산이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호조에 힘입어 개선됐다. 국민소득 증가폭이 성장률보다

더 컸던 것도 반도체 영향이 작지 않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됐고, 이는 실질 구매력 증가로 이어졌다. 명목 성장률도 가팔랐다. 1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고, GDP 디플레이터(명목금액에서 물가 변동 효과를 제거해 실질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물가지수)는 12.9% 상승했다. 다만 이는 내수 물가가 급등했

수출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1분기 내수 디플레이터는 2.1% 상승한 반면 수출 디플레이터는 23.5% 급등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2025년 1인당 GNI는 원화 기준 5257만 원, 달러 기준 3만 6963달러로 집계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4.6% 늘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전추위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기업들 급전 찾는다... 단기차입금 216% 증가

올해 기업 102곳 단기차입 자금조달 규모 19.1조 달해 중소·중견사 유동성 리스크

기업들의 외부 자금 조달 유형 중 단기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 의존도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시장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자 국내 기업들이 고금리의 급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0일 메트로경제가 금융감독원에 '단기차입금증가결정' 공시를 낸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이월까지 102개 기업이 단기차입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규모는 19조1040억원(비상장 계열사 및 금융사 포함) 규모다. 이는 지

난해 같은 기간 6조335억원(70개)보다 216.63% 늘어난 것이다. 기업수는 45.71% 증가했다. 기업수로는 지난해 전체 165개사의 62%에 달한다.

이 같은 단기화는 기업 자금 조달시장에서도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회사채 발행실적은 22조2021억원으로 13.5%포인트 늘었으나, 이 중 일반회사채는 4조1740억원으로 6070억원(12.7%) 줄었다. 기업들은 회사채 대신 은행 대출로 자금조달 창구를 옮기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6000억원) 대비 약 43% 증가했다. 4월 기업어음(CP) 및 단기 사채 발행금액은 226조6038억원으로 전월 대비 26조1300억원

(13.0%) 증가했다.

회사 신용도와 성장성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발행하는 회사채나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비해 단기차입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진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력이 약한 중견·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압박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장기 저리 대출이 유리한데도 당장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단기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협력이 좋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 악화가 겹치면서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를 보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율이 전년 38.5%에서 지난해 3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으로 영업 적자를 본 기업 비율도 전년 26.2%에서 지난해 28.2%로 확대됐다. 이자보상비율이 낮을수록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100%가 안 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한계 기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회사채(무보증 AA-, 3년)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499%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중 최고치인 3.599%보다 0.90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허정윤 기자 zekova@metro



"더 나은 대한민국 보여드릴 것"

李 대통령, 8박10일 유럽 순방 순방 첫날 벨기에 동포 간담회

유럽 3개국 순방 첫 행선지인 벨기에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과 만나면서 8박10일 간의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동포들에게 "여러분이 격변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나은 대한민국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첫날인 이날 브뤼셀의 한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벨기에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아주 짧은 시간 극적으로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뀌었다"며 "본국의 위상이나 세계에서 인정받은 신뢰도에 따라서 대접이 좀 다르지 않으나, 아마 2~3년 사이에 극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다. 국가 위상을 돌리는 일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전모 밝혀 투명하게 공개" /사진 뉴시스
- ▲이 대통령 "AI 초과이익 국민에게 나누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 필요"

- ▲김 총리, 최태원 '해외 반도체 공장' 검토에 "한국에서 되도록 노력할 것"
- ▲방첩사 49년만에 해체...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내달말 창설

- ▲윤석열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 ▲검찰,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무상비밀누설' 부승찬 의원 혐의없음 처분

주요 그룹, AX 속도낸다… 업무체계 등 기업운영 전반 혁신

SK그룹 오늘 ‘뉴 이천포럼’ 개최
삼성 관계사 모든 업무에 AI 도입
현대차 자율주행 등 AI 기술 고도화
LG 품질관리 등 현장주도 실행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인공지능(AI) 전환(AX)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AI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 등에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사내 업무 방식 전반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공통된 목표다. 삼성이 전 관계사 업무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자 SK도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AI 대전환 방안 모색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은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강화에 집중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11일~13일까지 경기 이천 SKMS 연구소에서 ‘2026 뉴 이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 AX 중심 경영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석추구협의회 회장,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그룹 경영진



SK그룹은 오는 13일까지 ‘2026 뉴 이천포럼’을 개최한다. SK그룹 서린사옥 전경.

50여명이 참석한다.

AX는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AI를 쓰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경영 방식과 조직 운영 체계를 AI에 맞춰 바꾸는 게 핵심이다. SK가 2박3일 일정 전체를 AX 논의에 배정한 것도 AI 경쟁이 제품 개발이나 투자 전략뿐 아니라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포럼은 기존 ‘경영전략회의’와 ‘이천포럼’을 통합한 첫 행사다. SK는 매년

6월 주요 경영진이 모여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생존·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해왔다. 8월엔 구성원과 국내외 전문가가 글로벌 산업 트렌드, 혁신기술, 미래 사업 방향을 토론하는 이천포럼을 열었다.

SK에 앞서 삼성도 전날 ‘AI 대전환’을 선언했다. 삼성은 전 관계사의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 구매,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서비스, 경영지원 등 8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AI를 적용

해 경영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엔 이달 중 전 관계사에 제미니·챗GPT·클라우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 정보 유출, 업무 위험 요인을 통제할 보안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각 관계사의 직무·조직 특성에 맞춘 세부 운영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경영진 교육도 병행한다. 삼성은 전 관계사 사장단 50여명을 대상으로 AI 집중 교육인 ‘AX 부트캠프’를 실시한다. 전 관계사 임원 2300여명은 오는 8월12일까지 차수별 2박3일 교육을 받는다. 올해 안에 사장단과 임원을 포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마칠 예정이다.

삼성 전 관계사는 각 사업 특성에 맞는 AX 추진 전략을 세우고 데이터, 모델 운영 관리, AI 인재 육성 등을 이끌 AI 담당 조직도 신설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정인석 회장의 전략에 맞춰 AX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 회장은 올해 신년 좌담회에서 “AI를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업 진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에 미래가 달려있다”며 “다가올 미래에도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유일한 길

은 AI를 외부가 아닌 조직 내부의 생명력으로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신설한 ‘AI 거버넌스 TFT(태스크포스팀)’는 그룹 AI 전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가 AI 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위아 등도 직원 대상 AI 활용 능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LG그룹의 AX는 업무 시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 품질 관리, 데이터 보안, 현장 주도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구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AI의 무게중심이 현실 세계에서 구동되는 피지컬 AI로 확장되면서 로봇과 전장, 기업용 AI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 3월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AX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전제한 뒤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필요하기에 사업의 임팩트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더라도 빠르게 실행해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양용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정부, 빈부격차 완화·민생안정 등 적극재정 정책 추진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세입증가 예상… 재정 여력 미래투자
구윤철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

세수입 증가에 따라 불어날 재정의 상당 비중이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에 할애된다. 또 빈부격차 완화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적극재정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갖고 거시·재정·금융분야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덕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양호한 경기 여건에 따라 향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확대되는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잠재성장률 관련한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역대 처음으로 1.5% 선을 하회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다. 반도체 경기 호황기와 맞물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뛰었지만, 노동·자본 등의 부문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국제기구 OECD의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양극화 해소를 비롯해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절

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간 공조 확대를 통해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가 배포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금융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 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저신용차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환율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수출 기업 등”을 위해 ▲동반

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등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범위를 넓힌 첫 회의다. 새로 부임한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 정부는 안전 성격과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의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주재하고, 중동전쟁 이후 인프라 복구 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금융자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주요국은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수요 및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동 발주처 대상 통합 마케팅 등 민관협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선금융지원 등 국가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함께,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양용 기자



ky@metroseoul.co.kr metro

>> 1면 ‘GNI 뚝인데…’서 계속

반도체가 끌어올린 소득
실질 구매력 개선 ‘시차’

◆ 물가·환율·금리가 소득 개선 놀러

문제는 거시지표 개선이 곧바로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계 체감과 가까운 지표는 국민소득보다 더 무겁다. 가계 1인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지난해 2만515달러로 3년 연속 2만 달러 초반대에 머물렀다. 원화 기준으로는 늘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명목지표 안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 1분기 피용자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늘었지만, 총영업이익은 29.9% 증가했다. 수출가격 상승과 기업 수익성 개선이 명목 성장률을 먼저 끌어올린 반면, 가계 소득과 체감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 여건도 녹록치 않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대로 올라섰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60원선을 넘어서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환율 상승은 원유와 원자재 수입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는 석유류와 공업제품, 서비스 가격으로 번질 수 있다.

금리 환경 역시 부담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내놨다. 성장률과 국민소득 지표가 개선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명분은 약해지고, 반대로 물가와 환율 부담은 금리 인상 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

반도체가 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고환율과 물가, 금리 부담이 남아 있는 한 체감경기 회복 속도는 거시 지표가 보여주는 숫자보다 더딜 수밖에 없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 여부 만큼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

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 위반 혐의 동의의결 결정

113억 규모 상생협력안 받아들여

선박 제조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작업을 먼저 지시하는 이른바 ‘구두 발주’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삼성중공업이 법적 처벌을 받는 대신 113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협력사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서

면 지연발급)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우선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협력사 근로자들을 위해 ▲동반

지원금 인상(연 30.5억 원)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연 52.5억 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근로자 160만 원 납입 시 800만 원 수령 등 20억 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차녀학자금 등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 등 총 113억 원 규모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s@metroseoul.co.kr metro

기업들, 회사채 대신 CP로 버틴다... 금리 상승에 차환 부담

(기업어음)

경기침체 속 단기차입 부담 확대
SK케미칼 신용등급 하향 조정
롯데 계열사 단기부채 11조대
금리 오르면 유동성 위험 가중
전문가 “기업별 위험 차별화”



ChatGPT로 생성한 기업들의 단기차입금 의존 확대와 차환 리스크를 형상화한 이미지.

SK케미칼은 경기침체 직격타를 맞아 1분기(1~3월) 연결기준 732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 실적은 부진한데, 한국·중국·폴란드 등 지역별 평균 가동률은 20%대 초반을 기록하며 낮은 가동률에 따른 고정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지난달 공시한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내용을 보면 현재 단기차입금은 2770억원이다. 올해 들어 259.74% 늘어났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 회사의 장기 신용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단기 신용등급을 'A2'에서 'A2-'으로 낮췄다. 수익성 개선 여력이 크지 않고 대규모 투자로 차입 부담이 높아졌다는 게 이유다.

“돈 가뭄”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단기차입금 조달 시장과 은행 대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단기 대출은 업황이 좋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 악화가 겹치면 차환 리스크를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기 자금에 의존하는 기업들

작잖은 중견 기업들이 차입금의 늪에 빠져 있다. 방산 부문 매각을 갑자기 철회한 풍산이 대표적이다. 풍산의 올해 1분기 기준 차입금 규모는 약 1조 137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입금 규모는 2023년 703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1조원을 넘겼다. 차입금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의 경우 5893억 원으로 절반을 넘는 형편이다. 장기 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 돌아오는 유동성 장기부채 역시 1156억 원에 달한다. 풍산의 올해 1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경우 3032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풍산의 방산 매각 이슈에 대해 “정황상 어느 정도 매각을 검토했다고 여겨지는 바, 경영진

신뢰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매각 가능성을 경영 리스크로 규정하고 방산 사업에 매기던 경쟁사 대비 가치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국내 최대의 레미콘사업자인 유진기업은 연결 기준 1분기 단기성 부채 총액이 8969억원이다. 이자 비용만 1분기에 149억원이 발생했다. 금융기관 차입과 사채를 합산한 총차입금은 1조 4770억원에 달한다. 차입금 금리 범위는 최저 2.44%에서 최고 5.63%로 시장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부담이 클 전망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채권연구센터장은 “기업들이 장기 회사채 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비용 측면을 고려해 회사채 대신 CP나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안정성의 핵심 지표인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이 100%를 넘긴 기업 비중도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간판 대기업이 몰려 있는 유가증권 상장사의 1분기 부채비율 지난해 말보다 1.64%포인트 낮아졌지만, 평균 100%(108.74%)를 웃돈다. 중소기업들이 많은 코스닥 상장사는 부채의 높에

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들의 1분기 말 평균 부채비율은 122.03%다. 지난해 말 보다 9.23%포인트 상승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서 단기차입금 비중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 시장 전반으로 부실화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중에서도 급전 리스크에 노출된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롯데그룹의 단기 빚 부담은 적지 않은 규모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롯데 주요 계열사의 1년 이내 만기가 다가오는 단기차입금 규모는 11조 9609억원으로 가장 컸고, 호텔롯데 2조 9609억원, 롯데쇼핑 1조 588억원, 롯데지주 1조 6690억원 등 조 단위의 단기 부채를 안고 있다.

이들 외에도 여러 저신용 기업이 단기차입금 의존 확대와 나체 수준의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 하향을 동시에 겪고 있다. CJ CGV 단기차입금은 기존 822억원에서 2622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존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업어음 18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한 영향이다. CJ CGV의 신용등급은 'A-' 수준이다. CJ의 지원실적 및 유사시 추가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자체 신용도에서 1노치 상향한 신용도가

다. 포스코에너지는 1분기 단기차입금이 7678억원에 달한다. 전체차입금의 41.98%에 달한다. 매출채권 회수와 영업현금흐름 개선에도 부채비율은 171.9%를 기록했다. 포스코에너지의 신용등급은 'A+(부정적)'다. 지난해 말 실행자들은 신안산선 사고 등에 따른 평판리스크와 재무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포스코에너지의 등급 전망을 한 단계 하향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도 “올해 초 기업들은 금리가 곧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장기 차입을 최소화하고 CP(기업어음) 등 단기 조달 비중을 늘린 게 사실”이라며 “회사채 발행을 미루고 단기 자금으로 대응한 기업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많은 기업이 단기 조달을 선택하면서 향후 차환 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결국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장기 조달을 미루고 단기로 버티다 장기 대출 시기를 놓치고, 당장의 자금 조달에 차증하게 된 기업이 증가한 것이다.

◆금리 더 오르면 “기업별 위험 차별화”
비수도권에 있는 소재업체인 A사 경영

진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사채와 단기 자금시장도 들떠다보고 있다. 금리는 치솟는데 각 은행에서 받은 대출 만기가 매월 돌아오며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올해 1분기말 기업무수익여신(부실대출·부실지급보증 합산) 잔액이 5조 6000억원으로 2019년 1분기(5조 9047억 원) 이후 7년 만에 최고를 찍으면서 금융사들이 기업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지난해 초 설비 투자를 위해 은행권에서만 15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길이 열려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빚 상황 격정에 밤잠을 못이룬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는 외면받고 우량 기업에 쏠리는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용등급 AA 등급 이상 우량물이 3조 150억 원으로 79.9%의 비중이었으며, A등급은 16.4%, BBB등급 이하는 3.7%였다.

산업계 자금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기업들의 시름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동 전쟁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정화영 센터장은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여건까지 비우호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취약한 기업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는 레고랜드 사태처럼 전면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기업별 위험은 점차 차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도 “단기차입이 늘어나면 만기 구조가 짧아지는 만큼 차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유동성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내 조달비용이 커지고 있고 외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어 전반적인 자금 조달 환경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민생회복 소비쿠폰, GDP 0.12% 제고... 소비진작 효과 확인

한은 “경제적 효과 유효하게 작동”
10만원 지급 시 신규 소비 2만원 늘어
사용처 월평균 매출 2.91% 증가
추가 매출 증대 효과 2조 8000억



Chat GPT가 생성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미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총생산(GDP)을 약 0.12%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쿠폰 10만원을 지급받은 가계는 평균적으로 2만원가량 신규 소비를 늘린 것으로 추정됐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025년 GDP 제고 효과는 약 0.12%로 평가됐다. 여러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효과는 0.07~0.15% 범위로 추산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정책이다. 총 13조 5220억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비중은 약 70%였다.

한은 연구진은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사용처의 매출 증대와 가계의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직접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매출 증대 효과는 KB·BC·농협·신한·삼성·현대 등 6개 카드사의 사업자별 월 단위 신용카드 매출액 패널데이터를 활용했다. 소비 진작 효과는 실제 소비쿠폰을 신청한 동일 응답자군을 대상으로 한 2차례 서베이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자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보다 2.91% 더 늘었다. 여러 방법론을 추가로 적용하면 매출 증대

효과는 1.46~3.76% 범위로 추정됐다.

정책 효과는 지급 초기에 집중됐다. 1차와 2차 지급 모두 소비쿠폰이 지급된 직후 매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효과는 단기간 지속됐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이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합산한 소비쿠폰 사용자 1곳당 월평균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 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소비쿠폰 지급액 13조 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지급된 9조 1000

억원을 기준으로 재정투입액의 30.9%가 사용자에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추정 방법에 따라 매출 증대 효과는 1조 4000억~3조 6000억원,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 범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컸다. 지역별 차등지급을 도입한 1차와 차등지급이 없었던 2차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높았다. 연구진은 소비쿠폰이 소비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더 큰 소비 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업종별로는 잡화점, 음식점, 여가용품점 순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소비쿠폰이 생활필착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 올린 셈이다.

가계 소비 진작 효과도 확인됐다. 서베이 분석 결과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정됐다. 이는 소비쿠폰 10만 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 가량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다. 소비쿠폰이 없었다더라도 이뤄졌을 지출이 쿠폰

사용으로 대체된 경우는 소비 유발 효과에서 제외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비 품목별로는 내구재·준내구재·여가에서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컸던 반면, 비내구재·교육·의료 등 필수재 성격의 품목에서는 효과가 작았다.

1차 지급의 한계소비성향은 0.21로 2차 지급의 0.18을 소폭 웃돌았다. 연구진은 2차 지급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1차 지급액보다 줄어들면서 정책의 가시성이나 체감도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자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집행, 차등지원 방식, 사용자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차세대 기술부터 대규모 투자까지... AI메모리 시대 선두로

2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HBM 시장 선두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동시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맞춤형 HBM 개발과 생산능력 확대, 대규모 투자까지 병행하며 AI 메모리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만 TSMC를 처음 추월하며 AI 메모리 시대의 대표 수혜 기업으로 부상했다. 현재 글로벌 HBM 시장에서 점유율 57%를 차지하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49% 증가한 69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7조6103억 창사來 최고기록... TSMC 첫 추월 증권가, 2분기 영업이익 69조 추정

D램·낸드 제품 개발·공급 이어가며 다양화된 메모리 수요 대응 방침
폴스택 AI 메모리크리에이터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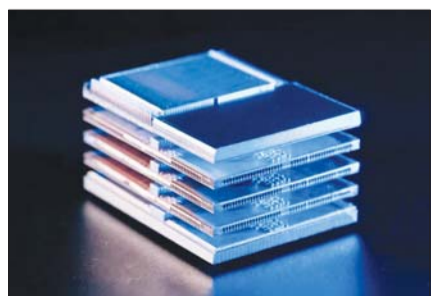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으로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범용 D램·낸드플래시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을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HBM4부터HBF까지...차세대 기술 선점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전반에서 신제품 개발과 공급이 이어가며 다양화된 메모리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사는 '폴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 개념을 강조하며 단순 메모리 공급 업체를 넘어 AI 시대 맞춤형 솔루션 기업으로



SK하이닉스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모습.



AI 시대를 혁신하는 새로운 설루션으로 HBF가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 뉴스룸



(왼쪽부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8일 오전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엔비디아 협력 관련 언론 브리핑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전경.



SK하이닉스 P&T7 조감도.

/SK하이닉스 뉴스룸

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확산과 함께 HBM 경쟁이 단순 공급량 중심에서 고객 맞춤형 개발 경쟁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표준형 HBM 공급을 넘어 고객 맞춤형 HBM(cHBM)을 제공하고, 이를 D램과 낸드를 아우르는 전 제품군 솔루션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4부터 메모리와 로직 기술의 결합을 강화하고 향후 고대역폭플래시(HBF)와 3D 스택 D램 온 로직 등으로 기술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HBF는 대규모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차세대 낸드 솔루션이다. 3D 적층 D램은 로직 반도체 위에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인 기술이다.

또 HBM5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적층 단위 확대를 넘어 '발열 관리' 능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 가속기 성능이 높아질수록 전력 소모와 발열 부담이 커지는 만큼, SK하이닉스는 냉각 소자를 패키지 내부에 내장한 'iHBM' 기술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오가는 구간에 냉각 기능을 추가해 열이 빠져나가는 전용 통로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열저항을 30% 이상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HBM5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욱이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 플랫폼과 AI 패키지를 앞세워 차세대 AI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낼수록 SK하이닉스의 역할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 고객사의 AI 가속기 구조와 서버 설계, 전력 효율까지 고려한 맞춤형 메모리 솔루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간 협력 관계도 단순 공급망 차원을 넘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공동으로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베라 루빈 AI 슈퍼컴퓨터, 젠슨 토르 로보틱스 플랫폼 등 차세대 AI 인프라 로드맵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사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 리더십도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한 브리핑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메모리 공급업체가 될 것이지만, 동시에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고객 역시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엔비디아에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투자로 미래 준비 나서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연구개발(R&D) 및 시설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차세대 HBM4 개발과 생산 경쟁력 확보에 몰두하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연구개발(R&D) 투자비는 2조55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R&D 인건비가 같은 기간 6115억원에서 1조3571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전체 투자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7조3480억원의 시설투자(CAPEX)를 집행했

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한 규모다. 회사는 충북 청주에 약 19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메모리 생산 거점인 패키징 공장 'P&T7'을 건설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첫 번째 팹을 가동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총 4개 팹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각 팹은 청주 M15X 6개를 합친 수준의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HBF 등 기술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
HBM5 '발열관리', 핵심 경쟁 전망
냉각 소자 내장 iHBM 기술로 대응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

연구개발 2.5조... 인건비 대폭 확대
청주·용인 7.3조 시설 투자 집행
5년 내 전체 생산능력 2배 확대

SK그룹은 향후 5년 내 전체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한 '컴퓨텍스 2026' 행사장 SK하이닉스 부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메모리 병목현상은 203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생산능력 확대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메모리 권설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최소 3년이 걸린다"며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KT 장기고객님을 초대합니다

2026년 6월

日 SUN	月 MON	火 TUE	水 WED	木 THU	金 FRI	土 SAT
----------	----------	----------	----------	----------	----------	----------



KT를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장기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KT 위즈파크에 초대합니다

자세히 보기



초대드림 KT 위즈파크 캠핑존, 테이블석 초대드림

쿠폰드림 데이터, OTT/지니 TV VOD/로밍 할인 등 14종 쿠폰드림

KT 장기고객 초대드림/쿠폰드림은 KT 휴대폰, 인터넷, IPTV의 각 이용기간을 합해 5년 이상 되는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초대드림 응모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k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 원 구성·당 쇄신 시험대

“계과갈등 경계하고 민심만 볼 것”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대응과
야당 몫 상임위원장 확보 ‘과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정점식의 원(경남 통영고성)이 선출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 앞에는 거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협상과 함께 당 쇄신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앞서 4선 김도읍 의원, 3선 성일중 의원과 경쟁했는데,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얻지 못해 김 의원과 결선 투표에 올랐다. 결선에서는 정 의원이 55표, 김 의원이 48표를 받아 정 의원이 당선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던진 한 표는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만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뿐”이라며 “약속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마치고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로 특정인과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110명 한분 한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통해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원들이 최전선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부터 뒷받침하겠다”며 “당면한 원 구성 협상부터 단

호하게,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단 취임과 함께 여당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이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사위원장 지리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체계·지구 수정을 맡는 곳으로, 법사위의 문턱에 걸릴 경우 법안이 계류될 수 있다. 거기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핵심 상임위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부위원회 등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는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대한 협상도 과제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 조율은 필요하다.

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권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정조사는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조만간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규정 짓고 공세를 펴온 바 있다.

당내 문제는 더 복잡하다.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선거 패배 책임론’이 여전해서다. 당내 소장파 등은 장 대표와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친한(친한동훈)계에서 계속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됐지만, 소장파의 지지를 받는 김도읍 의원과 결선까지 가는 접전이 벌어질 만큼 장 대표에 대한 거취 압력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장 대표가 자리를 지킬 경우엔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 대표가 사퇴할 경우, 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여부와 차기 지도 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서울 패배 책임론 확산... 민주당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선거백서 발간하고 평가위 구성 추진
정청래 대표 “당·정·청 협력 강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첫 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민주당 공개 최고위에서 서울 패배 등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담을 수 있도록 내외부 인사를 절반씩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울러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을 계기로 삼겠다”며 “당·정·청 원 팀 톱 보이스를 더 강화해 일 잘하는 지방 정부와 함께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크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이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백서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국민과 당원은 지도부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길 수 있었던 곳,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곳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지도부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지선 후 민심 요동... 여야 지지율 초점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바짝 붙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8.6%, 국민의힘은 38.1%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 격차는 0.5%포인트다.

직전 조사(5월 26~27일)에서 11.7%포인트(민주당 43.3%-국민의힘 31.6%)였던 격차가 약 2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개혁신당은 3.9%, 조국혁신당은 1.6%, 진보당은 1.0%였고, 무당층(없음-잘 모름)은 14.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지지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지지율이 지난 6·3 지방선거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벨기에와 무역·투자 협력 강화 논의

李 대통령, 웨브흐 총리와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의 첫 정상 간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뤼셀 총리관에서 웨브흐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에는 유럽연합(EU) 내 제2의 항구인 앤트워프항이 소재한 물류의 중심지다. 또 화학·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이 발달한 나라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로’ 확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대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총리관에서 바르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통령은 한-벨기에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李 “재외공관, 교민지원 플랫폼 역할 해야”

>> 1면 ‘李 대통령, 8박10일’서 계속

이어 “본국이 잘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야말로 원조를 받아서 힘겹게 살아가던 가난한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좀 앞서더니, 이젠 세계 문화의 중심국가처럼 느껴지지 않나.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좀 더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저력을 믿는다. 벨기에에 자리 잡고 대한민국 경제성을 잃지 않고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나. 앞으로도 여러분의 역할은 정말로 크고 기대가 많이 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벨기에에 교민 간담회가 역대 처음이라고 해서 놀랐다”며 “재외국민

과 동포를 합한 교민 수가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결코 적은 건 아니다. 또 벨기에가 6·25에 참전해 106명이 전사했다고 한다. 국가 규모 대비 많은 수의 전사자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외공관을 문화산업 진출 이라든지 또는 재외교민들의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한 후 재외공관장들에게 재외국민들, 동포들과의 면담도 자주하고 접촉도 늘려서 과연 그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지 다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1200건인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한 10배 이상 나와야 정상이다. 요구 사항이 제로가 될 때까지 다 해치우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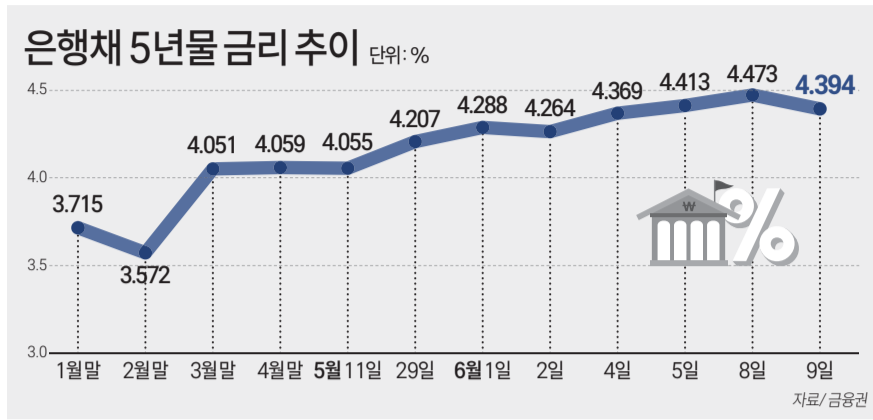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대출금리 재상승, 주담대 8% 찍나... 차주들 비명 커진다

美 금리 인상·한은 긴축 우려에 채권시장 금리도 오르고 있어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상승 압박



행의 자금조달과 직결되는 채권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9일 기준 3.860%로 지난달 초(3.561%)와 비교해 0.299%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장단기 조달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394%로 지난달 같은기간(4.055%)과 비교해 0.339%p 상승했고, 신용대출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같은기간 3.196%에서 3.616%로 0.42%p 올랐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이

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상승 압박으로 이어진다.

채권금리는 미국발 긴축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시장금리를 끌어 올렸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금융위원 2명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을 우려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5억원을 50년 만기 원리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금리가 연 5%일 때 상환액은 약 27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금리가 연 8%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386만원으로 늘어나 매달 159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대출 규모가 큰 차주일수록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1억원을 신용대출로 빌렸을 때 금리가 연 5%에서 연 6%로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큰 차주들은 금리 1%포인트 상승만으로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대출 관리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한금융 5조 규모 프로젝트 '포용금융 2.0 ON'

신한금융그룹은 총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2.0 ON(ON)'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신한금융은 올 상반기 약 33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우선 소각한다. 연내 소멸시효 도래 채권까지 포함해 연간 총 5000억원 규모를 소각함으로써 장기 연체고객의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장기 연체채권 576억원을 선제적으로 소각한 데 이어 약 1200억원을 추가 소각한다. 신한카드도 사망자 채권 또는 5000만원 이상 고객을 사유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8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약 1500억원을 이날 일괄 소각한다. 또한 제주은행·신한저축은행 등도 약 6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소각에 동참한다. /나누리 기자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예고... 업계 "현실성 떨어져"

금융위, 중소 추심업체 난립 막아 시장 재편으로 채무자 보호 취지



Chat GPT가 생성한 매입채권추심업 관련 이미지.

금융당국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대부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가제 충족 요건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중소 추심업체의 난립을 막고,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우량 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허가 요건으로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건전한 사업 계획, 대주주 요건, 전문성 등을 제시했다. 인적·물적 요건도 강화한다. 전문인력을 포함한 20

명 이상 상시 고용 인력 및 전산 보안 설비 강화 등의 조건을 추가로 포함했다.

채무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과 대출·대출중개업의 겸영도 금지한다. 매입채권추심을 위한 최소한의 부대 업무만을 허용하겠다는 방

침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와 같은 인적 요건의 경우 우량 사업체조차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10일 "오히려 자본금 30억원 등과 같은 자본 요건은 대형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20인 이상 상시 고용 인력 및 변호사 등 5인 이상 전문인력 확보와 같은 인적 요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갑작스런 허드 강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겸영 금지에 관한 내용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업체가 금전대부업과 매입채권추심업, 대부광고업 등을 복수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겸영이 금지되면 기존 법인 분

리, 사업 양수 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못해도 문제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업체는 6개월 내로 기존 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개인채 무보호자법 제23조에 따르면 채권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됐을 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직접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위탁 방식에서만 추심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위탁 추심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당국은 오는 8월 업계 간담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우리은행-KT-몽골TDB 외국인 금융 특화 3자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KT 및 몽골 무역개발은행(TDB)와 함께 '외국인 대상 금융·통신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광화문 KT 본사에서 이해광 우리은행 개인그룹장과 오르콘 아년 몽골 TDB 은행장, 김봉근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을 비롯한 3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 입국을 앞둔 몽골 국적 근로자 및 유학생이 입국 전부터 국내 정착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사는 각국의 인프라를 결합한 유기적인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몽골 현지에서 TDB를 통해 고객을 모집할 때, 향후 우리은행 해외송금 서비스와 KT 통신망 가입을 약정하면 TDB의 대출 및 예금상품에 우대혜택을 사전 반영한다. /안승진 기자

닥사, 12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집중조사 돌입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회(DAXA·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DAXA는 지난 2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적인 가상자산 영업을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업체가 특검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거래소의 평균인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다.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만큼, 일반적인 환전이 어려운 불법자금 이동 가능성이 크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다"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은행,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신청자 모집... 1300개 사업장 선정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오는 11일부터 3주간 신청자를 모집하며, '고효율 에너지 기기 도입 지원'과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1300개 사업장을 선정한다.

먼저, '고효율 에너지 기기 도입 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 향상을 희망하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1000개소를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 사업' 품목

은 에너지 효율 1~3등급 ▲에어컨(냉난방기 포함)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이다.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시장 진출과 매출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00개소를 선정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상품 디자인 개선, 페이지 제작, 판매 전략 수립 등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방송 기획 및 인플루언서 섭외 등을 돕는 '라이브커머스 지원'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기획, 펀딩 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나누리 기자

LH 활력타운 조성 추진 지자체 무상 컨설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등을 결합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올해부터 공모 방식이 아닌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LH는 지자체별 사업 준비 시점에 맞춰 신속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조직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협력해 컨설팅의 전문성도 높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자, 美 엘리먼트 1.7억弗 투자 멀티오믹스 등 의료시장 경쟁력 강화

시리즈 펀딩 참여... 최대주주 등극
DNA 시퀀싱 시장 입지 뒷받침
의료기기 분야 등 전략적 협력 강화



유전체 정보와 세포 변화를 시간 축에 따라 분석하는 '아비티 24'.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

삼성전자가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Element Biosciences-이하 엘리먼트)에 1억7500만 달러(약 2670억원)를 추가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엘리먼트의 시리즈 E 펀딩 라운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엘리먼트가 2억7700만 달러를 조달한 시리즈 D 라운드에 처음 투자한 데 이어 이번 시리즈 E에서 지분을 추가로 늘렸다.

엘리먼트도 지난 9일(현지시각) 시리즈 E 라운드를 통해 삼성전자의 1억7500만 달러를 포함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다른 투자자도 참여했으나 라운드 총규모와 기업가치, 투자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엘리먼트는 2017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설립된 유전체 분석 기업이다. 유전체 분석 정확도를 99.99%로 높이고 분석 비용을 낮춘 DNA 시퀀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DNA 시퀀싱은 생명체의 DNA 염기 서열을 읽어 유전적 변이와 특징을 확인하는 기술로, 선천적 유전 특성 파악, 질병 조기 발견, 개인 맞춤형 치료법 개발 등 정밀 의료 분야에 활용된다.

삼성전자가 주목하는 분야는 멀티오믹스(Multiomics) 기술이다. 멀티오믹스는 DNA뿐 아니라 RNA·단백질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단일 기기로 동시에 분석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DNA·RNA·단백질을 각각 다른 장비로 분석한 뒤 결과를 합치는 방식이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엘리먼트는 하나의 기기로 세포 변화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엘리먼트는 2022년 중형 DNA 시퀀

싱 기기 아비티(AVITI)를 출시한 데 이어 유전체 정보와 세포 변화를 동시 분석하는 아비티24, 분석량을 기존 대비 5배 늘리고 비용은 절반 이하로 낮춘 비타리(VITARI)를 선보였다. 비타리는 2026년 2월 공개됐으며 엘리먼트는 100달러에 전장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첫 고성능 벤치탑 시퀀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는 일루미나(Illumina)가 주도하는 글로벌 DNA 시퀀싱 시장에서 엘리먼트의 입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업계는 일루미나가 글로벌 시퀀싱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엘리먼트는 팩바이오(PacBio), 싱귤러 지노믹스(Singular Genomics) 등과 함께 일루미나에 도전하는 신생 기업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엘리먼트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AI 역량,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기술에 엘리먼트의 DNA 및 멀티오믹스 분석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유전자 진단 등 신사업 기회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전담팀이 에어컨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LG전자, 에어컨 사업범위 넓힌다

단순 수리 넘어 연중 유지보수 확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시스템에어컨 사후관리를 일회성 수리에서 연중 유지보수 사업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름 성수기에 설치와 세척에 머물던 서비스 영역을 법정 성능점검과 에너지 진단까지 확장하고 있다. 양사는 각각 별도 자회사를 앞세워 사후관리 시장에서 맞붙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물류 자회사 삼성전자로지텍은 지난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신규 등록했다. 기존 시스템에어컨 설치·세척·유지관리에 더해 건축물 기계설비의 법정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로지텍은 학교와 병원, 호텔, 대형 빌딩, 공장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B2B 현장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소비자 대상 에어컨 사후관리는 또 다른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가 담당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와 분리된 별도 법인이다. 소비자 AS와 사전점검과 전문세척을 운영한다. 또 관공서와 기업, 상가를 대상으로 한 B2B 시스템에어컨

세척·유지보수 사업도 직접 수행한다. 유지보수 계약 고객에게는 전용 콜센터와 전담 엔지니어를 배정하고 정기 방문 점검과 서비스 이력 관리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기업 대상 유지보수 솔루션도 별도로 운영한다.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상태를 점검하고, 휴일 없는 연중 서비스 체계를 갖췄다. 열교환기와 필터 세척으로 냉방 효율을 높여 전기료 절감 효과를 내세운다.

LG전자도 자회사 하이엔솔루텍을 통해 시스템에어컨과 칠러, 공조설비 유지보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성능점검능력 공시에 따르면 하이엔솔루텍은 성능점검 능력 기준 전국 10위에 올라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로지텍이 가세하면서 양사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에어컨은 설치 후에도 계절별 내내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안정적인 후방 수요가 발생한다"며 "단순 수리를 넘어 성능점검과 에너지 효율 관리로 영역을 넓히면 기존 설치 기반을 장기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美 합정정책 엇박자... K-조선, 현지진출 암초

행정부, 동맹국 활용 기초
의회, 해외건조 제한 움직임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 합정 직접 건조 기대가 미국 내 정책 엇박자로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 활용 필요성을 보고 있지만, 의회는 자국 일자리 보호를 앞세워 균형 해외 건조 제한에 나서면서 실제 수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미 해군 전투함 조달 계약에 해군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자국 조선업과 일자리를 우선하겠다는 의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 역량을 활용해 해군 전력 확대와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을 추진해 온 미 행정부 기조와 온도 차를 보인다. 미국은 합정 건

조 지연과 생산능력 부족으로 전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해군이 약 206척 규모의 전투함대를 운용하는 가운데 신규 합정 확보 속도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 조선 역량만으로 전력 확대가 쉽지 않다는 인식은 그동안 국내 조선업계의 대미 진출 기대를 키웠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 해군 합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을 기반으로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HD현대도 미국 내 투자와 협력 방안을 검토하며 대미 사업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해외 건조 제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합정을 직접 건조해 납품하는 방식은 당초 기대보다 진입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조선사들이 유지·보수·정비(MRO)와 현지 투자를 통해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다더라도 전투함 신조

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내 정치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미국 현지 건조 방식도 부담이 적지 않다.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신규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면 숙련 인력 확보와 기자재 조달, 공급망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막대한 초기 투자 부담을 고려하면 국내 조선사들이 현지 건조에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의, 양원 조정 절차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만큼 국내 조선업계는 조항의 존속 여부를 지켜보며 대미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합정 건조 지연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의회는 조선소가 있는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움직인다"며 "해외 건조 필요성은 결국 다시 논의되겠지만 양측의 이해가 엇갈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홀딩스, 리튬직접추출 기술 실증

美 현지 DLE 데모플랜트 건설

포스코홀딩스가 독자 개발한 리튬직접추출(DLE) 기술의 상업화 검증 단계에 들어간다. 기존 증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차세대 리튬 추출 기술을 실제 염수 자원에 적용해 경제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1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스리소시스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 DLE 데모 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LE는 농도가 낮은 리튬 염호에서도 경제적으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증발 방식보다 회수율이 높고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글로벌 리튬 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

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을 맡아 기술 상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앤스리소시스는 부지와 인프라, 염수를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실증은 포스코홀딩스가 독자 개발한 DLE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하는 첫 사례다. 저품질 자원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인하고, 북미 리튬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2027년 데모플랜트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8년까지 실제 염수를 활용한 기술 검증을 완료해 상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화큐셀, 美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조지아주 공장 셀 생산라인 완공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셀 생산라인 완공으로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를 마무리했다. 미국 내 생산체계를 완성하면서 첨단제조생산산업공제(AMPC) 수혜 확대와 함께 자국산 태양광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까지 셀 양산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와 생산 장비 점검을 마치고 최근 시운전에 돌입했다. 한화큐셀은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카터스빌 공장에서 생산한 셀을 활용해 미국산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번 완공은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미

국내 태양광 제조 밸류체인 구축에 따른 정책 수혜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화큐셀은 카터스빌 공장에서 생산하는 셀과 웨이퍼에 대해 첨단제조생산산업공제(AMPC)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의 올해 AMPC 수령액은 6억 7500만 달러(약 1조원)로 전망된다. 카터스빌 공장의 전 생산라인이 완전히 가동되는 2027년에는 8억 7900만 달러, 2028년에는 9억 2900만 달러, 2029년에는 11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챗GPT 전용 앱 출시

LG전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새로운 고객 접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맞춰 AI 플랫폼 기반 고객 경험 강화에 나섰다.

LG전자는 오픈AI의 챗GPT에 LGE닷컴 전용 앱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LG전자의 전용 앱이 이용하면 챗GPT 대화창 내에서 LG 제품 구매 정보나 구독 혜택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제품 상세 페이지나 프

모션 페이지 등도 바로 연결된다. 제품 탐색 및 구매 지원뿐 아니라, 전자제품 관련 일상적인 대화 시에도 LG전자 공식 온라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LG전자 전용 앱은 챗GPT 메뉴 탭 '앱스(Apps)'에서 'LGE.COM'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해당 앱에서 '채팅 시작'을 누르면 첫 대화창이 열리며, 최초 호출 후에는 별도의 앱 검색 과정 없이 챗GPT 대화창 옆 '더보기(+)' 버튼으로 바로 호출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송병준 “코스닥 활성화, 벤처 성장 고려해 신중·균형 설계”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협회, 기자간담회

세그먼트·중복상장·상예강화 신중론 “자금조달·성장경로 직결” 우려 제기 “코스닥, 코스피 2부 리그 같이” 진단 성장·기술시장 색깔로 대등경쟁 강조 R&D 핵심인력 주52시간 예외 촉구

벤처기업계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코스닥시장 제도의 신중한 설계,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라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세그먼트 분리·중복상장 금지·상장폐지요건 강화 등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 경로에 직결되는 만큼 속도와 세부 설계시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성장 특성과 자금 조달 구조를 고려해 제도를 더욱 유연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표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 등으로 나눠 기업을 등급·강등하며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코스닥 승강형 세그먼트’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다산다사의 원칙에 따라 요건 미달 기업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외형적인 시기총액, 현재 주가 수준 등으로 획일적으로 재단하기엔 벤처기업들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면서 “정책이 세부적이고 정밀하지 못

하면 역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협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여는 정책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업계는 벤처생태계 내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특정 섹터에만 정책 자금과 투자가 집중돼 생태계 내 불균형 우려가 큰 만큼 중소기업 중심이 아닌 다양한 섹터의

혁신벤처들이 골고루 기회를 얻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코스닥에서 우량기업이 떠나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의 코스닥은 마치 코스피의 2부 리그 처럼 돼 가고 있다. 미래, 성장, 기술 등 코스닥만이 갖고 있는 색깔로 미국의 나스닥처럼 코스피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강제성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다테크·스타트업 현장에선 속도와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라며 “근로자 보호와 건강권은 지키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통해 기술혁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D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근로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벤처금융 확대 ▲민관 협력 기반 규제혁신 ▲코스닥 체질 개선 ▲창업 저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줬다.

송 회장은 “현 정부 출범 1년 동안 추진한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 의지에 대해 벤처·스타트업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협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대거 채택된 점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벤처협회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벤처 생태계의 도약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서 ‘AX브릿지위원회’를 별도로 꾸렸다. 또 벤처금융포럼을 중심으로 투자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올해 ▲회원사 2만개 돌파 ▲벤처 1000억기업 1000개사 시대 개막 ▲벤처기업 4만개사 돌파라는 새 이정표를 기대하고 있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무게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교한 정책으로 번역하고 실현하는 현장 중심의 싱크탱크가 돼 우리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metro

K-푸드, AI 스마트제조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중기부·CJ 등 얼라이언스 출범 농식품부·식약처 등 범부처 동참 제조·기술기업 민관 플랫폼 구축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민간 기업들이 뭉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AI+ 똑똑한 공장쇼’를 계기로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제조·중소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김중구 농식품부 차관, 김용재 식약처 차장과 CJ제일제당 김찬호 대표,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겸 샘표 박진선 대표,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장이자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 임팩스 이상호 대표 등 정부·협회·기업 대표들이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비전 선언’을 통해 식품산업의 AI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K-푸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데이터와 AI 기반 제조혁신 추진 ▲제조기업·기술기업·지원기관 간 협력 확대 ▲현장 중심의 실증 및 성과 확산 ▲대한민

국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 선도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중기부는 K-푸드 제조혁신을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AI 기반 스마트제조 대표모델 확산, 수출지향형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식품 제조혁신과 긴밀히 연계해 원료 농축산물 생산부터 유통·외식·소비에 이르는 식품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식약처는 스마트 HACCP의 신속한 등록 지원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 스마트 GMP 현장 적용

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현장의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를 확산해나간다.

한성숙 장관은 “정부는 식품산업의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뷰티, 패션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을 확산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중구 차관은 “스마트한 식품산업을 기반으로 레시피·기술·컨텐츠 등 경험 전체를 산업화해 전 세계의 사랑과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K-푸드의 글로벌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 국가 브랜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한유원, 중소 뷰티기업 판로 지원 강화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팝업 시작
비클린 협업으로 소비자 점점 확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현대백화점과 협업해 중소 뷰티기업 팝업스토어를 열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0일 한유원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뷰티 편집숍 비클린(BeCLEAN)과 협업으로 운영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유동 인구가 많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시작으로 여러 지점에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에는 총 50개의 뷰티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지원 품목은 화장품, 향수, 바디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와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된다.

참여기업은 팝업스토어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 제품을 알리고 현장 반응을 기반으로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다듬을 수

있다. 추가로 판매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비클린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으로도 이어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판교대로 누리집에서 지원자격과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유원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오프라인 기획전, 온라인(더현대Hi)입점, 마케팅 역량강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판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는 “많은 소비자가 모이는 핵심 상권에서 열리는 팝업스토어인 만큼 제품 홍보가 절실한 뷰티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판매 경험과 소비자 반응이 기업의 다음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우수한국·뷰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왼쪽 6번째)이 지난 9일 서울 삼성호텔에서 열린 ‘제6회 INNO-Wave IR’에서 참석 기업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 기술혁신기업 투자유치 지원

제6회 INNO-Wave IR 개최
유망 기술기업 5곳 참여

이노비즈협회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유치와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 투자 연계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삼성호텔에서 ‘제6회 INNO-Wave IR’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한 ▲제타모빌리티(레이더 기반 AI 센싱 솔루션)

▲에프엘씨(반도체 후공정 본더 장비 및 핵심부품 개발) ▲네모즈랩(디지털 기반 K-POP 앨범 플랫폼) ▲탈레스테크(AI 반도체 패키징용 초정밀 레이저-검사 장비) ▲제닉스큐어(차세대 AAV 벡터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가 참가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주요 투자기관 및 벤처투자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해 기업별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

/김승호 기자

교원투어

여행이지, 이지멤버스 론칭

EASY 페스타 30일까지 진행

교원투어 여행이지가 유료 멤버십 서비스 ‘이지멤버스(EasyMembers)’ 론칭을 기념해 ‘EASY 페스타(이지페스타)’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10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이번 EASY 페스타는 ▲이지멤버스 가입 고객 한정 혜택 ▲라이브 방송 ‘이지타임’ 예약 고객 혜택 ▲이지페스타 특가 및 추석 얼리버드 상품 ▲교원 빨간엔 도서 키트 증정 ▲토스페이 결제 시 즉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됐다. 먼저 페스타 기간 내 이지멤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가입비(6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3만 포인트를 돌려주는 포인트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렛츠고 코리아 행사 진행

예선 점수 맞으면 경품 증정

공영홈쇼핑이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공영홈쇼핑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한민국이 속한 A조 예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렛츠고 코리아’ 행사를 진행한다. 예선 3경기의 점수를 맞추면 경기당 정답자 200명을 추첨해 빙수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6월 중 공영홈쇼핑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모바일 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응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에게는 적립금 1000원도 즉시 지급한다. 12일부터 25일까지는 ‘골든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모바일 앱에서 매일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고용안정 쟁취”... 카카오, 창사래 첫 파업 돌입

성남시 판교, 500여명 조합원 모여 임금·단체협약 교섭 갈등에서 고용안정·책임경영으로 확대 오는 29일 ‘로그오프데이’ 예고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일대에서 카카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용안정 쟁취’, ‘무책임한 경영진 퇴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유스페이스 광장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성과 보상과 고용안정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래 첫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출근 후 업무를 중단하는 ‘로그오프데이’까지 예고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 검은색 티셔츠와 흰색 우산을 맞춰 든 카카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하나둘 광장에 모여들었다. 조합원들은 “투쟁”을 외치며 결의를 다진 뒤 판교야지트를 출발해 웹젠과 NHN 사옥 인근을 지나 유스페이스 광장까지 약 800m를 행진했다. 점심시간을 앞둔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집회 장면을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찰 추산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날 행진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 시위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조합원들이 든 피켓에는 ‘고용안정 쟁취’, ‘무책임한 경영진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혔고, 곳곳에서 “공정한 보상”,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성과급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고용안정과 경영진 책임론으로 확대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

면이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006년 카카오 창사 이후 처음 있는 본사 파업이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펀드라이프, 디케이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노조가 함께 참여했다. 노조는 개별 법인의 임금 협상을 넘어 카카오 공동체 전체의 보상 체계와 고용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배경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이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 보상 구조와 임금 인상률 등을 두

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성과급 규모를 영업이익의 13~14% 수준으로 확대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성과급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의외로 ‘성과급’이 아니라 ‘고용안정’이었다. 노조는 최근 조직 개편과 계열사 효율화, 사업 재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중심 사업 재편과 비용 효율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영 실

패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되며, 투명한 보상 체계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경영진의 실책과 잘못으로 회사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의미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오는 29일에는 ‘로그오프 데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그오프 데이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의 쟁의 행위다. 노조가 단순한 하루 파업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집단행동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노사 대치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우려했던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측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서비스 안정화에 집중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단체행동 기간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소 대응 인력을 구성하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 日·대만 ICT 기업과 ‘글로벌 AI 펀드’ 조성

7600억 규모 공동투자 자금 조성

SK텔레콤이 일본 등 동아시아 ICT 기업과 협력해 약 7600억원(5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자금을 조성한다.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인프라 및 AI 반도체 등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일본 NTT-대만 중화텔레콤과 ‘하이온 AI 펀드’를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재현 SK텔레콤 CEO, 시마다 아키라 NTT CEO, 린롱츠 중화텔레콤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일본 도쿄 오테마치에 위치한 NTT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3사는 펀드 운영회사 카탈라이트 캐피탈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동아시아를 거점으로 글로벌 펀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를 계기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이 보유한 AI, 반도체 및 네트워크 기술 역량이 글로벌 AI 생태계와 연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AI 펀드’는 약 7600억원(5억 달러) 규모로, 미국·유럽·아시아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쓰인다. 투자 분야는 ▲전력 효율 최적화 및 액체 냉각 등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AI 가속기·GPU·NPU 등 AI 반도체 등이다. 이 밖에 ▲의료·제조·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의 AI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분산 시스템, 추론 최적화를 위한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전송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광통신 등도 포함됐다. /조민선 기자

재난 발생 시 소방청 우선 연결... 통신 혼잡 줄인다

통신3사, 공공안전 정부 협력 확대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 개시 소방대원 단말기에 전용 유심 적용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소방관 우선전송서비스 출시 기념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과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 /LG유플러스

앞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통신량이 몰려도 소방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10일 정부 및 통신 업계에 따르면 대형 산불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으로 통신 이용이 급증해 망이 혼잡해지더라도 일반 이용자보다 소방청과 우선 연결·처리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소방 대원 간 소통, 신고자 및 응급 의료진과 통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연결해 통신 지연이나 끊김으로 인한 재난 대응 차질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통신3사는 소방대원 단말기에 전용 유심(USIM)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수 서비스에서 통신망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KT는 소방 행정망에 5G

단독모드(SA)를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 안정성을 극대화한다. LTE 망을 거치지 않고 5G 망 내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해 전송 지연을 축소하고 안정성을 높인다. 대상은 KT 회선을 사용하는 전국 소방청 내 업무용 단말 핸드폰, 패드, IoT 장비 등 약 8400대다. 향후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5G 단독 망 안에서 별도로 소방 업무에 최적화된 통신 자원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공공 안전 분야에서 통신 3사와 정부 간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이번 서비스 도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소방청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통신 협력을 지속했다. 올해 5월 경남 창원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소방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 유심을 교체 중

이다. SK텔레콤도 이에 발맞춰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2011년 정부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한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된 용도와 별도의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 서비스로 분류해 우선 전송을 허용한다.

기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소방관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사이의 통신 품질을 지원한다면, 우선전송 서비스는 신고자부터 소방관·의사 등 일반 이용자 간 통화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한다.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두 체계를 병행해 긴급구조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삼성SDS, AI·클라우드 보안체계 강화

美 엑스보우 등 2곳과 기업 보안 지원

삼성SDS가 클라우드 보안 전 영역을 강화한다.

삼성SDS는 국내외 인공지능(AI) 보안 전문기업들과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협력 기업은 미국 AI 보안 스타트업 엑스보우와 국내 클라우드 보안 기업 테이텀시큐리티 등 2곳이다.

삼성SDS는 기업 고객의 안전한 AI·클라우드 환경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취약점 탐지 ▲클라우드 통합 보안 모니터링 ▲보안 사고 대응 등 전 영역의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엑스보우와 웹 기반 IT 자산을 대상으로 AI 기반 취약점 탐지 역량을 확대한다. 엑스보우의 AI 기술을 활용한 모의 해킹으로 기업 고객의 웹 서비스와 정보자산 취약점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찾아낸다. 이후 취약점 보안 등 후속 조치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가용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잠재적 보안 사고 가능성을 낮추며 법적·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테이텀시큐리티와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통합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조민선 기자

크로스 프로토콜, 독립 밸리데이터 추진

에이치랩, 첫 외부 합류

크로스 프로토콜이 첫 외부 독립 밸리데이터로 에이치랩(H Lab)을 추가하고 메인넷 2.0 ‘브레이크포인트’의 탈중앙화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5월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에이치랩의 독립 밸리데이터 참여를 추진해왔다. 네오위즈홀딩스의 크립토 부문인 에이치랩은 이번 합류를 통해 크로스 프로토콜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 생성에 참여한다.

밸리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검증자를 의미한다. 외부 밸리데이터가 늘어날수록 특정 운영 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크로스 메인넷 2.0은 총 21개 밸리데이터가 블록 생성을 담당하는 지분증명권한(PoSA) 구조로 운영된다. 크로스 프로토콜은 이번 에이치랩 합류를 시작으로 안정적인 노드 운영 역량과 네트워크 기여 능력을 갖춘 외부 밸리데이터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네오위즈 “닌텐도 스위치 2서 ‘P의 거짓’ 즐기세요”

오는 8월 6일 스위치 버전 선행



네오위즈는 PC·콘솔 액션 RPG ‘P의 거짓’의 닌텐도 스위치 2버전인 ‘P의 거짓: 컴플리트 에디션’(사진)을 오는 8월 6일 정식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시 소식은 지난 9일 열린 닌텐도의 온라인 쇼케이스 ‘닌텐도 다이렉트 2026’를 통해 공개됐다. ‘P의 거짓: 컴플리트 에디션’은 본편 ‘P의 거짓’과 DLC ‘P의 거짓: 서곡’을 함께 담은 디지털 합본으로, 판매 가격은 6만9800원이다. 현재 닌텐도 e숍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다.

네오위즈는 이번 닌텐도 스위치 2 출시를 통해 ‘P의 거짓’ IP의 플랫폼 확장과 글로벌 이용자 점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머천다이즈 기업 아이엠8비트와 협업해 본편과 DLC를 묶은 실물 패키지인 ‘마리오네트 인형’ 등 스페셜 굿즈도 선보인다. 굿즈는 아이엠8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판매 중이며, 오는 10월 2일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지수 제자리 걸음, 투자자는 이탈... 코스닥, 갈 길을 잃었다

코스피 79% 뛰는데 코스닥은 0.64% 지수, 출범 당시 수준에도 못 미쳐 업종 편중·높은 변동성 등 원인 우량기업 육성, 부실기업 퇴출 절실



ChatGPT로 생성한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닥지수' 관련 이미지.

작정인 박모(37)씨는 요즘 코스닥의 '요'지만 들어도 화가 치솟는다. 저조한 투자 성적 때문이다. 올해 수차례에 걸쳐 알테오젠·에코프로비엠 같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5000만원가량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회복하거나 하락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8%로 곤두박질했다. 박씨는 "지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해 수익원을 벌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상투를 잡은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코스피의 열기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까지 번지지 않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연초(지난 2일) 대비 약 79.38% 오르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945.57에서 951.63으로 0.64% 올랐다. 자금 흐름을 봐도 올해 들어 코스피의 평균 일일 거래대금은 34조원에 달하지만, 코스닥은 14조원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조인인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

며 코스닥의 상대 성과가 둔화했다"면서 "코스닥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 R)은 27.4배로 10년 평균 17배에 비해 부담이 커진 상황이며 코스피의 8배와 비교해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은 2005년 대비 시가총액이 15배로 늘었다. 하지만 지수는 1996년 7월 출범 당시(1000)를 여전히 밑돈다. 부진의 배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면과 특정 업종에 치우친 편중성, 그로 인한 높은 변동성 등이 꼽힌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코스닥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도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같은 초우량기업

이 지수를 견인한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에 있던 우량주들이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코스피로 옮겨가는 '엑스더스'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부실기업 퇴출이 늦어지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시장의 신뢰를 낮추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체질 개선 강화에 기대를 건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 상장사 인턴스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런 것이 주가 조작 아닌가?"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한 바 있다. 인턴스가 교환사채(EB) 발행 과정에서 주가 상

승을 제한할 수 있는 콜옵션매수 청구권)을 설정해 주가를 누를 유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응이다. 사실상 공모도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인턴스 관련 발언은 정부의 코스닥시장 체질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다. 코스닥 상폐 시가총액 기준이 현재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에 오른다. 이르면 10월부터 코스닥 승강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총 3개 리그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우량기업은 키우고 좀비기업은 쉼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2차 국민성장펀드라는 코스닥 자금줄도 있다.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정책자금 가운데 약 8조원 규모가 코스닥 시장에 직접 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프라·대출 등 간접 지원 효과까지 포함하면 (코스닥 유입 자금은) 5년 누적 약 10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전통적으로 개인 중심의 시장이었던 코스닥에 외국인·기관 참여가 확대되면서 투자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 등도 유동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프리미엄지수 출범과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참여 확대도 코스닥시장 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이는 점도 시장 활성화 기대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이 'MIDAS 코스닥 액티브', 신한자산운용이 'SOL 코스닥 TO P10' 등을 내놓았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지난 2일 'TIGER 코스닥액티브'를 상장했다. 이외에도 타임폴리오의 'TIME 코스닥액티브',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 Act 코스닥액티브', 한화자산운용의 'PL US 코스닥150액티브' 등이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기업들은 가시적인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저평가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에는 기업의 성장이나 정부의 지원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거래소, 복수의결권 기업 상장 규정 신설

창업자 보유 주식에 최대 10개 의결권 의결권 기준 실질 지배자 판단 위한 규정

한국거래소는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에 대비한 규정을 신설한다.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실질 지배자 기준을 정의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에서 제외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을 합산해 가장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를 최대의결권자로 규정한다. 벤처금융이 최대의결권자인 경우 벤처금융과 경영 미참여자는 최대의결권자에서 제외한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2023년 11월 도입됐다. 100억원 이상의 외부 투자로 창업자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이 적더라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주식 수와 의결권 비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액화수소 벤처인 하이리움산업과 물류 벤처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소수 업체가 채택하고 있다. 이 중 하이리움산업이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밟게 되자, 단순히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를 실질 지배자로 보는 현행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한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은 없다.

한국거래소는 또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을 선정해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기준을 함께 마련했다. 저평가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끌어낸다는 취지로,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2개 연속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외)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저PBR기업'으로 선정해 공표할 수 있다. 관련 업종 분류와 PBR 선정 기준, 공표 방법은 거래소가 정한다.

의의가 없을 경우 이런 개정안은 내달 2일 시행된다.

/신하은 기자

"韓증시 저평가 여전... 기업가치 제고 필요"

보스턴컨설팅그룹 보고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 여전히 낮아 자본 효율성 높이고 주주환원 강화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8000선을 넘어서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는 아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수 상승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10일 발표한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한국 저PBR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사들의 총주주수익률(TSR)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는 2024년 말 2400선에서 2025년 말 4200선, 올해 5월에는 8000선을 돌파하며 약 1년 반 만에 3배 이상 상승했다. BCG는 이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방산·조선원전 등 주도 업종의 실적 개선 및 밸류에이션 확대 영향으로 분석했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만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가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해 말 기준 1.4배, 올해 말 예상치 기준 1.9배로 미국(4.9배), 대만(4.0배), 인도(2.8배)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방산·조선원전 등 주요 업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예상 PBR은 1.0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삼성운용, 중퇴기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30년 8월까지 운용

삼성자산운용은 근로복지공단 주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성평가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 삼성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자산운용의 운용 전문성과 1기 성과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나타냈다.

중퇴기금은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담운용기관이 통합 운영하는 국내 대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전문 운용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가 강점이다. 특히 운용 여력이 부족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자산운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제도 도입 후 맡아온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의 역할을 이어나가며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향후 근로복지공단과 세부 협의 거쳐 9월 1일부터 기금을 본격 운용할 계획이며, 운용기간은 2030년 8월 말까지다.

삼성자산운용은 중퇴기금의 첫 전담운

/신하은 기자

용기관으로서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마케팅, 정책지원 등 기금운용 전 영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가입자 확대와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차기 사업기간에는 중퇴기금의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며 전담운용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도입돼 배달라이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및 회사 부담 퇴직연금이 없는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6.25참전유공자회 영등포구지회에서 열린 기부 행사에서 홍원식 대표이사 사장(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증권

LS증권, 국가유공자 가정에 따뜻한 나눔

식료품·생필품 등 전달

LS증권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6·25참전유공자회 영등포구지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호가족을 위한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송고한 희생을 기리고 지역사회

회 내 보호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LS증권은 식료품과 생필품 등 기부 물품을 6·25참전유공자회 영등포구지회에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등 보호가족에 전달될 예정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산업연, ‘초광역 성장엔진’ 제안 “‘5극 3특 기능분담’ 전략 필요”

‘5극 3특’ 성과창출 방향 제시
앵커기업 투자·인재양성 등 강조
“예산 나눠먹기식 지원 벗어나야”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5대 초광역역권·3대 특별자치권) 균형성장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시·도별로 사업을 나열하거나 예산을 나눠 먹는 식의 분산 지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앵커기업의 투자와 거점도시의 혁신기능을 유기적으로 묶는 ‘초광역 성장엔진’을 설계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10일 발표한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의 지역산업 정책은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했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비수도권의 주력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핵심 혁신자원인 기업체 연구

개발비의 81.4%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의 산업혁신과 인재 정착을 뒷받침할 기반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시도별 사업 나열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의 혁신기능, 대학·연구기관, 인재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엔진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의 ‘접착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공장 등 생산기능은 배후산업공간에 배치하더라도 연구소, 본사, 기획, 창업, 고급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기능분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체계와 대중교통망 조성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도 주문했다. 시도별 사업 목록 대신 앵커기업의 신·증설 또는 이전 투자, 핵심 공급망 기업 유치를 결합한 대형 초광역 프로젝트를 구체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점국립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각종 특구 및 금융·세제 혜택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 기업에 제공하되, 기업 역시 단순 입지를 넘어 지역 연구소 설치나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혁신생태계에 기여하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책의 성공을 가르는 성과관리 기준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총사업비 규모나 투자협약액, 유치 건수 중심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창출, 고임금 일자리 확대, 연구소·본사 기능 이전, 지역인재 정착 등 실제 ‘산업구조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대안이다.

김송년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지난 4~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6 CIS(독립국가연합) K-푸드 박람회’ 현장

aT, 러시아서 2100만달러 규모 수출상담

‘CIS K-푸드 박람회’ 참여

K-푸드의 인기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체들이 지난 주말 현지에서 2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과 22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체결 실적을 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7일 기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26 CIS(독립국가연합) K-푸드 박람회’가 열렸다.

aT는 국내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가 참여하는 B2B 수출상담회와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홍보행사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등에서 초청된 바이어 45개사와 국내 수출업체 37개사가 참가

했다. 현장에서 총 411건·21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딸기, 사인머스켓, 사과 등 신선 농산물과 잡채·비빔밥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HMR)이 관심을 모았다. 국내 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총 18건·223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과 현장계약 등을 맺었다.

이어 주말 모스크바 최대 외식전문쇼핑몰인 ‘DEPO 푸드몰’에서 열린 소비자 행사에는 약 1만5000명이 찾았다. 행사장에는 K-라면존, K-김밥존, K-음료존 등이 마련됐으며, 소비자들이 직접 ‘한강 라면’을 조리해보는 체험 행사와 국산 쌀로 만든 냉동김밥·쌀가공식품 홍보가 진행됐다.

aT 관계자는 “러시아 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바이어 발굴과 소비자 마케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봄철 산불조심기간 정전 피해 ‘0건’

사전 예방 철저·비상대응체계 운영

한국전력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24시간 촘촘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 결과, 산불로 인한 정전 피해를 완벽히 막아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선제적 예방 활동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산불에 의한 정전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산불로 인해 2개 변전소에서 정전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 한전의 철저한 사전 대비와 전사적 역량이 결집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로 평가된다.

한전은 이번 산불조심기간 동안 공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다. 이 기간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한전 임직원 6050명, 협력사인력 6098명 등 연인원 총 12만148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국 산불 발생 지역 인근의 전력설비 443개소에 즉시 출동해 설비 영향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당국에 전력설

비 위치를 안내하는 등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펼쳤다.

아울러 한전은 365개 송배전 협력업체와 비상복구지원 동원체계를 구축해 전선, 전주 등 주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전개해 신속한 복구 태세를 마쳤다. 특히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의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지형 변전소 조경의무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성과도 거뒀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봄철 산불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계절성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산사태 취약 철탑과 변전소 배수 시설, 지중설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폭염에 따른 설비 과열 및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서해북부 야간조업 전면 허용

연간 3200t 수산물 추가어획 추산
황종우 장관 “조업여건 지속 개선”

당국의 규제완화에 따라 서해북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된다. 이 일대 해역은 도합 3039㎢(9억1900만 평)로, 서울 면적(605㎢·1억8300만 평)의 5배에 달하는 어장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30분 아래)에서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인천 강화해역(북위 37도30분 위)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의 시범운업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백 톤(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연간 약 187억 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돼 왔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업의 어려움 및 수익 감소를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지난 3월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제한 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선은 37도 30분 이상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됐던 37도30분 이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말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하여 조업할 수 있게 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구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韓 기업 해외법인 유동성 지원 확대

장영진 사장, 중견기업 소통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우리 기업 해외 현지 법인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며 유동성 지원에 본격 나섰다.

무보는 장영진 사장이 지난 9일 충북 음성 소재 중견기업 삼동을 방문해 해외 현지법인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리 코일 등 전력 소재 전문 제조기업인 삼동은 테네시 등 미국 내 주요 거점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삼동은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 지원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운전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의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금융지원이 부족해 해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9일 충북 음성에 소재한 삼동을 방문해 해외 현지법인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무보

외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권익위, 공적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서

공공기관이 행정 착오로 산재환자에게 치료비를 잘못 지급해 놓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려 환수 조치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자에게 산재 요양비를 착오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 체계가 복잡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

려운 만큼, 산재 요양 종결이 임박한 환자에게 사전에 건강보험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지급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라는 취지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 체계 간의 전환과정에서 행정적 안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대학로 NO.1 여성전용 섹시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헝키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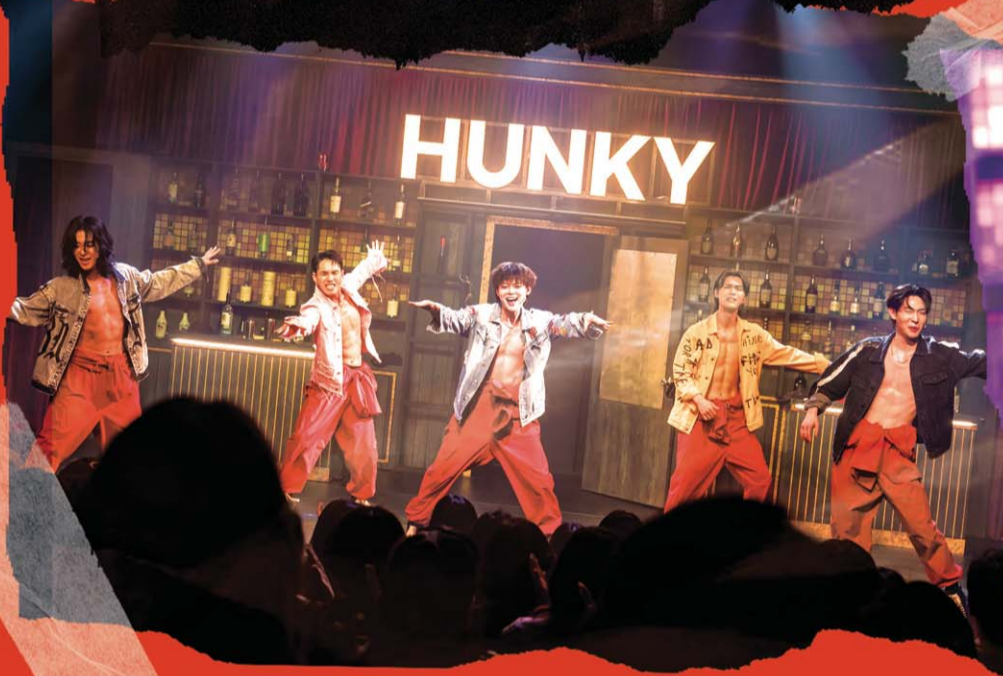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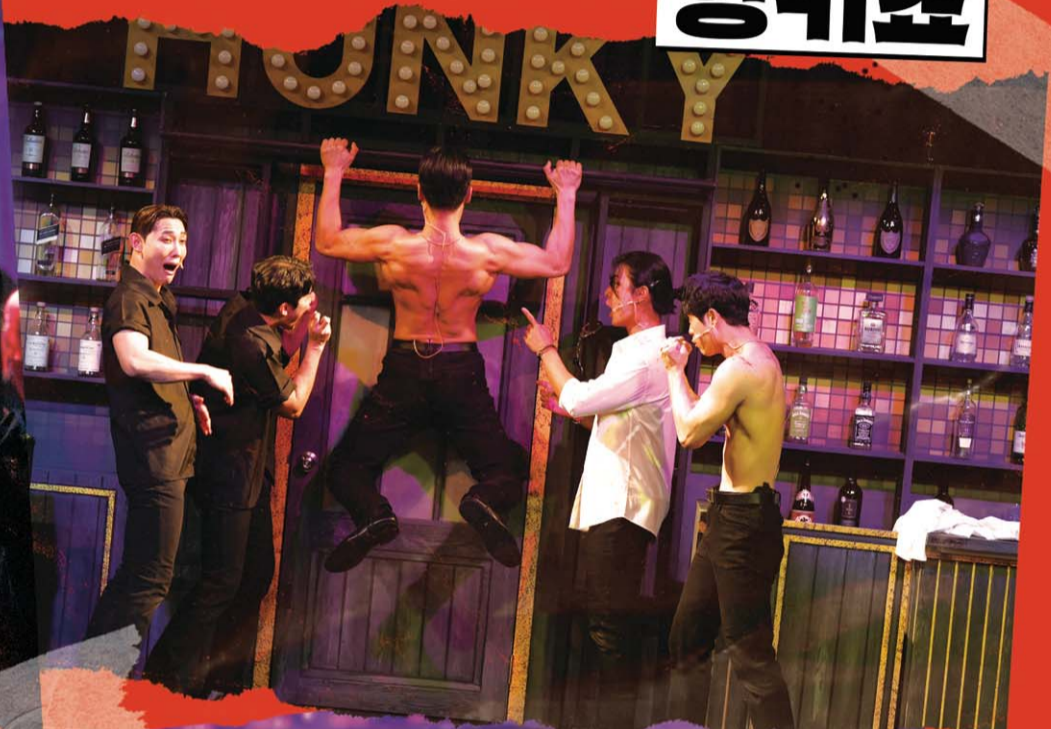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스타스태이지

본적 없던 섹시 코미디

헝키쇼



매번 다른 조합, 매일 다른 캐릭터!



관객 참여로 더 큰 재미!

<헝키쇼 NOL TICKET 리얼 후기>

NOLETICKET 바로가기

| NOL 티켓 평점 10점 |

도파민 팡팡
스트레스 타파!!

soa***님 ★★★★★

스트레스 너무 만방이라 탈주해서 간 공연. 너무 재밌어서 눈물 날 정도로 웃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6명이 눈호강 귀호강 시켜주는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도 재미!! 한번만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있더라고요

a10***님 ★★★★★

사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키쇼 덕분에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장면을 완성하는
참여형 쇼!

ins***님 ★★★★★

공연 끝나고 나올 땐 우울한 마음이 어디 갔는지 썩 사라져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웃고 나왔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n회차 관람해도 n번째로 새롭다는 점. 배우분들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같은 배우여도 표현이나 애드립이 달라서 여러 번 본 저도 매번 새롭게 즐기게 돼요.



카메라를 켜 위 큐알코드를 스캔해보세요!

경북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거점 조성”

2차 이전 앞두고 유치전략 점검 40여 개 전략기관 유치군 선정 첨단제조·물류 등 4대 벨트 추진 정주여건 개선·인센티브 논의 “지역산업 동반성장 모델 구축”

경북도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와 관련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경북 이전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유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북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기존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40여 개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산업과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글로벌 혁신



9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2차 공공기관 경북 이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거점 조성을 목표로 ▲첨단 제조 혁신 벨트 ▲스마트 물류 벨트 ▲에그리테크 벨트 ▲생활·교육 중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제조 혁신 벨트는 반도체·이차전지·원전·SMR 산업 기반을 활용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5개 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스마트 물류 벨트는 경북 혁신도시의 교통·우정·조달 기능과 연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우체국물

류지원단 등 13개 기관 유치에 나선다.

에그리테크 벨트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생명·푸드테크 연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생활·교육 중심축은 문화·환경·복지 분야 기관과 교육·연수기관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유치위원들은 토론에서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정주 여건 개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국장들도 관계부처와 이전 대상기관,

노조 등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앞으로 이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유치 희망 기관별로 지역 산업과의 연계 등 논리를 확충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정치인, 출향 인사, 주민 등과 유치활동을 펼치고,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정주기반 설명회,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철영 공동 유치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며 “새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북의 강점을 적극 알리려라”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여름밤 ‘심야책마당’ 열려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심야책마당’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주문화관1918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책과 음악,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야간 독서문화 행사로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행사 기간 경주문화관1918 잔디광장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심야책광장’이 마련된다. 또한 경주 지역 동네책방 7곳이 참여하는 ‘심야책마켓’과 2300여 권의 도서를 갖춘 경주시립도서관의 비취달린 도서관도 운영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울산시

반구천 암각화 브랜드화 시동

울산시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를 갖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울산대학교 내 울산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상표(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자인 개발 사업을 통해 시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보고회에는 시와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문위원,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 사업 추진 배경과 상표 개발 방향, 디자인 주제,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울산=이도식 기자

김해시

주택구입 이자 지원 확대

김해시가 올해부터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출산가구까지 넓히고, 경남도와 공동으로 500가구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3% 이내 최대 150만원, 출산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대출잔액 한도와 지원 금액이 각각 달라진다. 김해시는 해당 사업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291가구에 1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신산업 육성 전담조직 가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9일 ‘혁신성장부’ 출범식을 열고 신산업 육성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경제청은 앞서 6월 1일부로 2026년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핵심은 ‘혁신성장부 신설’과 ‘원스톱 민원 체계 구축’ 두 가지다. 기존 2본부 4부 12과 체제를 2본부 1실 4부 14과로 확대했으며, 정원은 110명으로 늘었다. 새로 신설된 혁신성장부는 투자전략본부 산하에 전략산업과와 기업혁신과를 배치해 운영한다. 투자 유치 기능도 재편됐다. 전략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기획과로 바꾸고 투자유치1·2과를 총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맡겼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이도식 기자

영주 소백예술제, 공연·전시로 물든다

내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진행 시민회관 공연장·전시실 활용

영주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시민과 공유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 제33회 소백예술제를 개최한다.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공연과 전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저력을 선보이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영주시민회관 공연장과 전시실, 서천둔치 일원에서 제33회 소백예술제를 개최한다. 소백예술제는 문학과 공연예술, 시각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대표 종합 예술제로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인협회와 연극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무용협회, 연예예술인협회 등 8개 지역 예술인 단체가 참여한다. 각 단체는 공연과 전시를 통해 창작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 8개 협회가 참여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며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소백예술제 개막식 공연모습)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일 오후 7시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지역 출신 가수 송수영의 식전공연을 비롯해 색소폰 연주자 김민재와 팝 소프라노 김예은, 팼페라 그룹 카르디노, 트로트 가수 정혜린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공연 프로그램도 연일 이어지고, 전시 프로그램 풍성하게 마련됐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보성군, 외국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전남도동권익센터와 캠페인 전개 감자 수확 농가 5곳 찾아 홍보

보성군은 전남도동권익센터와 함께 외국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군과 전남도동권익센터는 지난 8일 회천면 감자 수확 현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남도동권익센터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

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성군과 전남도동권익센터 관계자들은 회천면 일대 감자 수확 농가 5곳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 얼음물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무더위 속 건강 관리를 도왔다.

특히 ▲수시로 물 마시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무더운 시간대 작업 강도 조절하기 등 여름철 농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관광공사, 관광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이달 중 웹포스터·SNS 등 홍보 관광 공공데이터 33종 개방 안내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관광 분야 공공데이터의 민간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공사는 6월 중 웹포스터·SNS·언론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현재 개방 중인 관광 공공데이터 33종의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활용 수요로 연결되도록 데이터 종류·접속 경로·QR 코드 등 구체적인 안내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공개 대상 데이터는 다누리별차, 부산 시티투어, 유니크메뉴, 비짓부산패스, 관광기업지원센터 등 공사 주요 사업 관

련 정보를 비롯해 부산 관광 산업 동향 분석, 문화 관광 해설, 채용 정보 등 관광 산업 전반 및 시민 생활과 접점이 있는 데이터까지 총 33종이다. 공사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별도 절차 없이 내려받을 수 있다.

공사는 관광기업지원센터와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는 데이터 활용이 관광 서비스 개발, 콘텐츠 제작, 관광 산업 분석 등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시민·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포항시·포스텍, 양자 연구거점 조성

국제관서 선도 센터 개소 2029년까지 총 237억 투입

경북도·포항시·포스텍은 9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양자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센터 문을 열고, 글로벌 양자 연구 거점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센터 개소식에 경북도·포항시·포스텍·한국연구재단과 하버드대·싱가포르 국립대(NUS)·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국내외 주요 연구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2029년까지 총 237억원을 들여 하버드대·싱가포르국립대 양자기술센터(CQT) 등 세계적 연구 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양자 얽힘 생성·제어 기술 개발, 양자 컴퓨팅 핵심 기술 연구, 국제 공동 연구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개소식에 연구책임자인 이길호 포스텍 양자글로벌협력센터장이 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포스텍-하버드대 간 국제 공동 연구 협약(MOU)도 맺었다.

이어 경북도-포항시-포스텍은 ‘글로벌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양자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글로벌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거점 조성 및 지역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이들 기관은 협약으로 ▲글로벌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거점 조성 및 추진 체계 구축 ▲연구 개발·국가 공모 사업 공동 발굴·추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외국인 몰리는 백화점·아웃렛... 2분기 실적호조 기대감

주요 백화점 결제추정액 19.2조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 규모
증권가, 백화점주 목표가 일제 상향

올해 들어 국내 주요 백화점과 아울렛의 결제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며 2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소비 심리 회복과 프리미엄 소비 수요가 맞물린 가운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과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성과급 효과가 백화점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1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소비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주요 백화점과 아울렛의 결제 규모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1~5월 주요 백화점의 결제 추정 금액은 19조 27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주요 아울렛 역시 6조 2400억 원으로 5.4%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주로 30~40대 고객 비중이 높았으며, 1인당 월평균 결제 금액은 롯데에비뉴얼이 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백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전경

화점(43만 9,000원), 갤러리아백화점(28만 8,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매출 성장세의 주된 배경으로는 가장 먼저 '외국인 특수'가 꼽힌다. K-콘텐츠 열풍과 엔저-위안화 회복세로 올해 1분기 방한 외국인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476만 명을 기록하면서 유통업체가 수혜를 입었다. 지난 1분기 롯데백화점 본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23%까지 치솟았고, 신세계백화점은 연간 외국인 매출 1조 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은 외국인 매출이 121% 급증했다. 이어 5월 초 일본 골드워르크와 중국 노동절이 겹친 황금연휴 기간에도 롯데백

화점(110% 증가)과 더현대 서울(155.3% 증가) 등 주요 점포의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2분기 실적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과거 3% 수준이던 국내 내수 시장 내 외국인 카드 사용액 비중과 백화점 내 외국인 매출 비중(5~7%)이 구조적으로 더 상승해 내수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경기 남부 이른바 '반세권(반도체+역세권)' 백화점들의 유례없는 호황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자, 대규

모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 명품과 프리미엄 소비로 전환됐다. 실제로 올해 1~5월 화성 롯데백화점 동탄점(25%), 신세계백화점 사우스시티점(23%), 현대백화점 판교점(20%)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점포의 매출 성장세는 전 점포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성과급 지급 시기와 맞물려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의 럭셔리 주얼리 매출은 199% 급증했고, 현대 판교점(하이주얼리 59%)과 롯데 동탄점(럭셔리 시계·보석 45%)도 고가 카테고리가 성장을 주도했다. 대기업 임직원의 객단가가 30% 이상 높아진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증권가에서도 백화점주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키움증권은 신세계 85만 원, 롯데쇼핑 23만 원, 현대백화점 22만 원으로 목표가를 높였다. 자산효율과 외국인 매출 증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기업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초 임금 인상과 인센티브 효과가 이어져 백화점 매출 호조가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신세계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8169억 원, 롯데쇼핑은 49% 늘어난 8146억 원, 현대백화점은 14% 늘어난 4313억 원으로 상향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 시장 강세에 따른 자산효율과 외국인 매출 증가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 백화점 매출이 기존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화 약세와 한일령 영향으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매출 비중도 구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롯데마트, 1000원대 초저가 PB상품 힘 준다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 완화
'오늘좋은 숙주나물' 980원 출시

롯데마트가 초저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확대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올해 들어 롯데마트의 1000원 이하 PB 상품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1000원 이하 PB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3% 늘었다.

롯데마트는 오늘 '오늘좋은 숙주나물(380g)'을 980원에 출시하고, 25일에는 '오늘좋은 순두부(350g)'를 690원에 선보일 예정이다.

숙주나물은 100% 녹두를 사용해 재배했으며, 순두부는 찌개와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식감을 강조했다.



지난 9일 롯데마트 제타플러스점에서의 고객 모습. /롯데마트

롯데마트는 가성비 소비 트렌드에 맞춰 1000원 이하 PB 상품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관련 상품 수는 2024년 45개에서 올해 6월 기준 90개로 늘었으며, 신선식품과 음료, 과자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품목을 확대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오늘좋은 콩나물(300g)'과 '오늘좋은 두부(300g)'가 각

각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음료 부문에서는 '오늘좋은 딸기·바나나·초코우유(각 200ml)'를 500원에, '오늘좋은 그린애플 스파클링 제로'와 '그레이프 스파클링 제로(각 500ml)'를 780원에 운영 중이다.

과자 부문에서는 '오늘좋은 제트콘'을 포함한 34종의 1000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생활용품 부문에서는 티슈와 물티슈 등을 1000원에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이와 함께 올리브유, 우유, 식빵 등 주요 식품군에서도 가성비 PB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 출시한 '오늘좋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1L)'는 누적 판매량 29만병을 기록했으며, '오늘좋은 데일리우유(1L)'는 누적 판매량 19만개를 넘어섰다. '오늘좋은 숨결통식빵(400g)'도 출시 이후 식빵 카테고리 판매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11번가, 중국 역직구 사업 본격 추진

징동월드와이드에 전문관 개설

11번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동닷컴(JD.com)의 크로스보더 아커머스 플랫폼 '징동월드와이드(JD Worldwide)'에 '11번가 전문관'을 개설하고 중국 역직구 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11번가 판매자들은 전문관을 통해 중국 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문관은 징동월드와이드 메인 화면에 노출되며, 징동닷컴 앱에서도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전문관에는 K-뷰티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패션, 리빙, 유아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350여 개 브랜드 상품이 입점해 있다. 징동닷컴의 정책에 따라 브랜드 본사 및 공식 총판

상품만 판매하며, 159위안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11번가는 전문관 개설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대형 쇼핑 행사인 '618 쇼핑 페스티벌' 기간과 맞물려 운영된다.

행사 기간에는 '브랜드 데이'를 통해 한국 브랜드를 소개하고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뷰티를 비롯해 패션,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리빙 등 7개 카테고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구매 고객에게 결제액 200위안당 30위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문관 첫 구매 고객에게는 5위안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11번가는 향후 입점 브랜드와 상품군을 확대하고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신제품

BBQ 'AI 황울세트' 한정 판매

젠스 황 엔비디아 CEO와 한국 파트너들의 BBQ 매장과 야구장 방문이 연일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BBQ가 현장에서 즐겼던 메뉴를 한데 담은 한정 세트를 선보인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현장 메뉴를 바탕으로 구성된 'AI 황울 세트'와 'AI 시구 세트'를 출시하고, BBQ앱에서만 2주간 한정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AI 황울 세트'는 BBQ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 가격에 감자튀김과 레몬보이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AI 시구 세트'는 '크리치 순살크래커' 가격에 크림치즈볼 2개와 레몬보이 2개를 함께 증정해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화제의 메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식사이론' 국탕류 3종

롯데웰푸드는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을 통해 상온 국탕류 3종(사진)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제품은 '타향골 순살감자탕', '오뎅 식당 부대찌개', '해운대원조할매국밥 소고기무국'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백년가게의 대표 메뉴를 간편식으로 구현했다.

신제품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별도 조리 과정 없이 데워써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CJ프레시웨이-세광그린푸드, 600억 규모 식자재 공급 계약

전용상품 개발 등 협력범위 확대

CJ프레시웨이는 외식 전문기업 세광그린푸드와 연간 600억 원 규모의 식자재 공급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CJ프레시웨이는 세광그린푸드가 운영하는 7개 외식 브랜드, 전국 150여 개 매장에 800여 종의 식자재를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2024년 양사가 처음 체결한 200억 원 규모 계약과 비교해 2년 만에 3배로 확대됐다.

세광그린푸드는 석암생소금구이, 산청 숯불가든, 교대이층집 등을 운영하는 외식기업이다. 최근에는 즉석 바비큐 전문

브랜드 달맞이장장바비큐를 선보이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전국 쿨드체인 물류망을 기반으로 세광그린푸드의 식자재 수급을 지원해왔다. 특히 신규 브랜드 출점과 가맹사업 확대 과정에서 브랜드별 메뉴 특성과 매장 운영 환경에 맞춘 식자재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세광그린푸드의 대표 브랜드인 석암생소금구이는 론칭 약 1년 만에 전국 80개 매장을 돌파했다.

양사는 앞으로 브랜드 전용 상품과 조리 효율화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공급을 넘어 프랜차이즈 운영

효율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솔루션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광그린푸드 관계자는 "사업 성장 과정에서 CJ프레시웨이와의 협력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재계약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넓혀 시너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양사가 축적한 신뢰와 운영 노하우가 이번 재계약의 기반이 됐다"며 "외식 고객사의 성장과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과 물류 솔루션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월드컵 열기 타고 매출 띄운다... 유통가 프로모션 경쟁

도미노피자, 경기 당일 피자 할인
코카콜라, 출전국 한정판 패키지
하이트진로, '테라XSON7' 출시



리얼 응원 포스터 /하이트진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면서 식품·유통업체가 본격적인 월드컵 특수 잡기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한국 대표팀의 조별선언 경기가 평일 오전에 편성됨에 따라 과거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던 전통적인 '차맥 특수' 공식은 다소 약화된 상태다. 그러나 업체는 시차 장벽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인기 제품 프로모션, 스타 마케팅, 한정판 굿즈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마케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경기 일정 맞춰 실속 마케팅

식품업계는 대표팀의 경기 일정에 맞춰 실속형 할인과 SNS 참여형 이벤트를 강화했다.

먼저 도미노피자는 대한민국 축구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경기 전날인 11일, 18일, 24일에 자사 앱을 통해 사전 예약을 완료하면, 경기 당일(12일·19일·25일)에 모든 피자(L) 배달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대표팀이 승리할 경우 경기 당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문 포장 40%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교촌치킨은 '축구 보는 맛, 교촌'을 테마로 요거트월드, 농심, 문베어 등 협업 파트너사와 함께 '맛 조합 응원 시리즈' SNS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경기 전 기대되는 장면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긴 고객을 추첨해 제품 교환권과 수제 맥주·막걸리 금액권 등을 증정한다.

제너시스BBQ도 별도의 대형 캠페인보다는 기존 인기 상품인 '버라이어티팩'의 판매와 할인 행사를 강화하며 차별하게 내일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7층 스포츠 매장서 모델들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공식 굿즈를 홍보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공식 후원' 타이틀·손흥민 마케팅

월드컵 공식 스폰서 기업들은 대규모 한정판 굿즈와 오프라인 체험 공간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한국코카콜라는 1978년부터 이어온 공식 후원사로서 'FIFA 월드컵의 모든 순간, 코카-콜라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을 포함한 8개 출전국을 테마로 한 '출전국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폴라베어 응원단 키링', '스트라백' 등 소장 가치가 높은 굿즈 증정 이벤트를 열었다. 아울러 70여 명 규모의 '원정 응원단'을 꾸려 현지 응원도

지원한다.

오비맥주는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요 스포츠 펍과 식당 5곳을 카스뷰 펍으로 지정해 평일 오전 시간대에도 축구 팬들이 모여 단체 관람과 응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도 뜨겁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출시 7주년과 국가 대표 등번호 7번을 연계해 테라 X SON 7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이고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집중 가동 중이며, 롯데웰푸드는 '월드콘 먹고 손흥민 친필 사인 유니폼 받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품 뚜껑 안쪽의 행운번호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친필 사인 유니폼을 증정한다.

◆편의점·백화점도 '굿즈·할인' 지원

유통업체도 식품 및 주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연계 마케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10일부터 매일 오후 6~10시 인기 맥주 번들 상품을 할인하며, 한국팀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칭따오, 하이네켄 등 인기 맥주 9종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대용량 즉석조리 치킨 3종 3000원 할인 및 포켓CU 앱을 통한 10% 픽업 할인 등 안주류 프로모션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고객이 직접 문구를 넣을 수 있는 커스텀 맥주도 한정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비자(Visa)와 손잡고 본점, 잠실점 등 주요 점포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공식 비치티셔츠, 토트백, 축구공 등을 선착순 증정한다. 잠실 롯데월드몰에는 '축구 포토존'을 설치하고 주매 한정 스트레스 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 효과를 노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수출 효자 된 미용의료기기... 글로벌 정조준 동아에스티, '세노바메이트' 호주 공급

수술용 의료기기까지 포폴 확대
美·중 등 대형 시장 진출 '속도'



'출원원 프로' /원텍

국내 대표 미용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피부미용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수술용 장비로 다각화하는가 하면 미국, 중국 등 거대 시장을 동시다발적으로 공략해 'K뷰티' 영토를 넓힌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레이저·에너지 기반 메디컬 솔루션 기업 원텍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40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 늘었다. 이 중 78%에 달하는 312억원을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등에서 벌면서 수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

원텍의 외형 성장에는 원천 기술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확장이 주효했다. 1분기 피부미용 부문 매출 392억원 중 고주파(RF) 장비인 '올리시오' 제품군이 198억원, 피코케어·라비앙 등 레이저 장비가 120억원을 기록했다. 또 장비 누적 판매에 따라

동반 성장하는 소모품 매출 74억원 등이 뒷받침됐다.

이와 함께 원텍은 수술용(서지컬) 장비를 수출해 신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홀몸 레이저 수술장치 '출원원 프로'의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최소침습 수술이 가능한 이 장비는 인증 전부터 현지 파트너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원텍 관계자는 "에스테틱에 이어 서지

컬 장비도 핵심 사업축으로 키울 것"이라며 "이달 말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병원 4곳에서 데모를 진행해 동남아 서지컬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미용의료기기 1위 기업인 클래스스 역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클래스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872억원으로 20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3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우선 클래스스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매출에서 북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클래스스의 모노폴라 고주파(MRF) 장비 '에버레스(국내명: 불뉴머)' 누적 설치 규모는 300대를 돌파했다. 또 올해 신규 출시한 마이크로니들 고주파(MNRF) 장비 '퀴드세이'는 1분기 만에 합산 1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중국에서도 진출 개시 단계에 돌입했다. 현지 대리점 계약 등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안에 불뉴머 안하기를 획득해 본격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아로텍스 파마슈티컬과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는 호주 아로텍스 파마슈티컬과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지역 내 '세노바메이트' 개발 및 판매 권리는 아로텍스에 이전된다. 아로텍스는 현지 허가 및 상업화를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완제품을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아로텍스는 호주 처방의약품 시장 내 상위 제약사 중 하나로,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에서 유통 및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 중추신경계(CNS) 분야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뇌전증 치료제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국산 신약이다. 흥분성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나트륨 채널을 억제하고 GA BAA 수용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경세포의 과흥분 상태를 조절하고 흥분·억제 신호의 균형을 정상화한다.

품목허가를 위한 성인 부분발작 환자 대상 다국가 임상 결과, 세노바메이트를 투여한 환자에서 유의미한 발작 빈도 감소율과 완전발작소실율이 나타나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

아울러 동아에스티는 SK바이오팜과 2024년 1월 한국을 포함한 동·서남아시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튀르키예 등 30개 국가에 대한 세노바메이트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11월에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노바메이트 품목허가를 획득해 현재 급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청하 기자

알테오젠, ADC 피하주사 개발 가능성 제시

ALT-B4 전임상 성과 공개

바이오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글로벌 항체·약물접합체(ADC)시장에서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막을 올린 '월드 ADC 서밋 사우스 코리아'에서 제조업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활용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피하 투여에 대한 전임상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알테오젠은 ALT-B4 병용이 ADC 피하 투여의 내약성과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ALT-B4는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인 하이브리드자입 기술을 구현한 물질이다.

이번 전임상은 미니피그에서 진행했다. 알테오젠은 자체 개발한 ADC인 ALT-P7(항HER2 ADC)을 정맥투여(IV), 피하투여(SC), 또는 ALT-B4 병용 피하투여(SC) 방식으로 투약하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

특히 ALT-B4 병용 SC 투여군에서는 투약 후 빠른 흡수 속도를 보이며 ALT-B4 미사용군과 비교해 전신 약물 노출, 생체이용률 등의 지표에서 향상된 데이터가 도출됐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트루패스' 임상 유용성 공유

'J STAR 심포지엄' 개최

JW중외제약과 JW신약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처방 전략을 바탕으로 '트루패스' 안전성과 약력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JW중외제약과 JW신약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간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트루패스(성분명: 실로도신)'의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을 공유하는 'J STAR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트루패스는 전립선을 둘러싼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전립선 및 방광 경부에 밀집된 α1A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요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립



JW중외제약인 지난달 30~31일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트루패스'를 주제로 한 학술 행사를 가졌다. /JW중외제약

선비대증에 동반되는 동반되는 배뇨장애를 개선한다.

심포지엄 첫날 서울대 보라매병원 유상준 비뇨의학과 교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 시 다뤄져야 할 초기 증상 완화와 지속적인 배뇨 기능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청하 기자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킷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네비딱한 천재

벤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홍수기 대비 저수지·배수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홍수기에 앞서 '풍수해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상습 침수지역과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가운데)은 최근 전북 익산 망성면을 비롯해 경기·충청·전라·경상권 주요 수리시설과 침수 피해지역 등을 찾아, 현지의 배수장 가동 상태와 저수지 안전관리 현황 등을 살폈다. /농어촌공사



UPA, 아테네 '포시도니아'서 중소협력사 지원

울산항만공사(UPA)가 지난 1~5일 기간 그리스 아테네 '메트로폴리탄 엑스포'에서 열린 '포시도니아 2026'에 참가해 국내 중소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울산항 협력관'을 운영해, 사전 공모로 선정한 중소협력사 3개사의 제품·기술 홍보와 현지 바이어 상담을 집중 지원했다. /울산항만공사



교촌에프앤비, 특수학급 학생들과 박물관 나들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바르고 봉사단'이 지난 5일 서울 금호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교촌 임직원과 가맹점주 11명이 함께 참여해 '교촌가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교촌에프앤비



iM사회공헌재단, 지역 초등학생 경제·금융교육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경상북도 내 금융취약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성한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금융



씨티은행 임직원, '따릉이' 안전점검 봉사활동

한국씨티은행은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안전 점검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연간 임직원 참여 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뉴욕의 자전거 공유 시스템 '씨티바이크(Citi Bike)'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씨티그룹의 경험과 철학을 국내에 적용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국씨티은행

삼성전자서비스 “여객선 없는 작은 섬까지 찾아갑니다”

출장, AI 사전케어 등 맞춤 서비스 업계 유일 울릉도 상설 서비스센터 흑서기 전 에어컨 사전점검 캠페인 업계 첫 시각장애고객 전담 상담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제품 고장 후 수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진단과 도서·재난지역 방문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는 대원칙 아래 엔지니어들은 정기 여객선이 없는 작은 섬까지 배를 빌려서라도 들어간다.

10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역 출장서비스, AI 기반 사전케어, 에어컨 사전점검 캠페인, 재난지역 특별 점검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지역출장서비스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까지 이어진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울릉도에 상설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낙도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의 모습. /삼성전자

백령도·덕적도·흑산도·비금도 등 섬 지역까지 방문하는 '낙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PC, 프린터 등 출장서비스 대상 제품의 점검·수리, 소모품 교체, 사용방법 안내를 제공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25년 남해안 인근 섬 지역에서 약 5000건의 출장서비스를 제공했다.

제품 고장 전 미리 살피는 사전 케어

도 강화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매년 여름 흑서기 전에 실시하는 '에어컨 사전점검' 캠페인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원 연결 확인 ▲실내기 먼지필터 세척 ▲실외기 주변 정리 ▲에어컨 시험 가동 등 자가점검 방법을 안내하며, 캠페인 기간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AI 진단 기능이 이

용하면 고객이 냉매량, 모터 상태, 열교환기 온도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전문 상담사의 원격 진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환경의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업계 최초로 '시각장애고객 전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휴대전화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토크백(TalkBack)' 기능 설정과 방문 수리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해, 산불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별 서비스팀을 현장에 파견해 '재난 지역 특별 점검 서비스'도 운영한다. 여름철에는 수해 지역에 가전제품 세척·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휴대전화 점검 장비를 실은 이동 서비스 차량을 함께 파견해 휴대전화 세척·건조·고장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IG D&A 판교하우스에서 열린 'LIG D&A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 3기' 수료식 후 축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IG D&A

LIG D&A, 방산 SW 인재양성 박차

'임베디드SW 스쿨 3기' 수료식 6개월간 약 1000시간 교육 이수 수료생 24명 특별채용 전형 자격

LIG D&A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하우스에서 'LIG D&A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료생들은 교육 과정 동안 LIG D&A 현업 실무진의 멘토링을 받아 수행한 '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전자광학·적외선(E-O-IR) 시스템'과 '수중무기 시스템' 등

방산 특화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했다.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은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트레이닝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방산 특화 실습 교육과정이다. 교육생들은 6개월간 약 1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쌓았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24명에게는 LIG D&A 특별채용 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회사는 이달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해 오는 7월 입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대웅그룹, 중간 돌봄 '케어 허브' 개소

이달 사전 등록, 내달 6일 첫 입소

대웅그룹 자회사 대웅개발이 병원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선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기관과 가정 사이 돌봄 공백을 메울 이른바 '중간 돌봄' 인프라 수요가 커지는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대웅개발은 오는 7월 경기 하남에 시니어 단기 레지던스 '케어 허브'를 개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사전 등록을 진행해 첫 입소 시기는 7월 6일부터다.

케어 허브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인지·신체·수면·영양 등 일상 속 건강관리 루틴을 통합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다. 수술 및 치료 이후 재활과 회복이 필요한 이용자,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이 필요한 시니어 등을 중심으로 한다.

체류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 시설은 총 30실 규모로, 사생활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전 객실이 프리미엄 1인실로 조성됐다.

케어허브는 기존 장기 요양 중심의 요양원이나 거주 목적의 실버타운과 달리,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 복구에 필요한 생활 리듬을 재설정한다.

시니어 전용 장비를 활용한 균형·근력 운동과 수면 습관 점검, 영양 관리, 정서 안정 활동 등도 병행된다. 신체 분야에서는 시니어에게 적합한 운동 장비와 균형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전한 움직임과 일상 활동을 지원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넥센타이어, 소아암 환아 지원 등 사회공헌

임직원 자발적 헌혈 문화 확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아

넥센타이어가 임직원들의 자발적 헌혈 참여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넥센타이어는 헌혈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다년간 혈액사업 발전에 앞장서 온 개인과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올해 수상한 총 11개 단체 가운데 타이어 업계로는 넥센타이어가 유일하다.

넥센타이어는 사내 헌혈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소아암 환아 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을 기념해 넥센타이어는 그동안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서 총 614매를 수혈이 필요한 곳에 기증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지역 사회와 공존 및 공생 가치 추구'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장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 기부나 단발성 활동을 넘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장기적 상생 파트너십 구축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넥센타이어는 양산 분사와 창녕 공장이 위치한 부산·경남 지역과 오랜 연을 이어온 만큼, 해당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영남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기부하며 복구 지원에 동참했다.

/양성운 기자 ysw@m

'이미르컵 챔피언십' 韓 대표 250명 참가

위메이드, 오는 27~38일 대회 열어

위메이드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이미르컵 월드 챔피언십 시즌2'의 레전드 매치에 출전할 한국 대표 선수 250명을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르컵 월드 챔피언십'은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핵심 콘텐츠인 서버대전을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다. 위메이드는 오는 27~28일까지 양일 서울 삼양 SOOP 콜로세움에서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한국 대표 선수는 참가 신청자 가운데 전투력 랭킹을 기준으로 선발



위메이드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이미르컵 월드 챔피언십 시즌2'의 레전드 매치에 출전할 한국 대표 선수 250명을 선발했다. /위메이드

됐다. 이들은 대회 둘째 날인 28일 레전드 매치에 출전해 월드 챔피언십 시즌2 우승 서버와 맞대결을 펼친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KBS◇부장급스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1국 CP 이은형 △스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2국 CP 이은미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사장 최재호

부음 ▲정일용씨 별세, 정찬화(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수)씨 조부상 = 9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0호, 발인 11일 오전 9시. 02-2258-5

서울 초등 방과후, 학교 밖 공공기관·주말까지 넓힌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23개기관 참여 초4~6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키움센터 등 공공시설 활용 AI·코딩·드론 등 미래교육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안에 머물렀던 방과후 교육을 지역 공공기관으로 넓히고, 주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 무상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AI·코딩 등 미래교육은 물론 독서·환경·요리·예술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 기반의 방과후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운동네가 함께하는 초등 방과후 배움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초1~2학년 대상 놀이 중심 프로그램과 초3학년 방과후 교육비 지원에 더해 초4~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공공시설을 활용한 무상 방과후 프



서울시교육청 용산 청사.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 15곳과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7곳, 청소년센터 1곳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는 미래 교

육과 독서·인문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강남도서관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3D펜 과학창작소', 강동도서관은 '강동 어린이 과학 탐험대', 가산도서관은 AI 크리에이터 캠프를 운영한다. 동대문도서관은 '미래상상 AI 창작소', 어린이도서관은 드론 조종 기초반, 용산도서관은 체험형 코딩교실을 진행한다.

독서와 인문학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서대문도서관의 '그림책으로 만나는 초록 세상', 송파도서관의 어린이 인문학 워크숍, 고덕평생학습관의 '독서 토론으로 시작하는 생각 글쓰기', 노원평생학습관의 '우리가 그린(Green) 내일의 지구' 등이 운영된다.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와 청소년센터에서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노원 거점형 키움센터는 요리 프로그램인 '토요 쿠킹! 맛있는 내일터', 동작 거점형 키움센터는 레고 코딩 수업을 운영한다.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는 미래 진로 체

합인 '메타스티 비자이 진로 클래스'를,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는 '도전! 나도 해리포터', '도전! 나도 과학수사대'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의 신약 개발 연구 체험 키움Lab',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의 밴드 운영 프로그램, 시립 광진청소년센터의 탁구·제과제빵·전자드럼 교실 등 학교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활동도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도서관·평생학습관 또는 학교를 통해 진행된다. 키움센터와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은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밖으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사교육에 편중된 주말 교육 환경을 완화해 학부모의 교육비와 양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경기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이달 14일까지 27개 전통시장서 진행 수산물 점포 705곳 참여해 규모 확대 국산 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환급

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수원·고양·화성·부천·안산·평택·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동두천 등 도내 15개 시군의 27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점포 705곳이 참여한다. 이는 올해 설 명절 기간 환급행사에 참여했던 16개 시장, 524개 점포와 비교해 시장 수는 11곳, 참여 점포는 약 35% 증가한 규모다.

행사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구매금액별 환급 기준은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행사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1차로 배정된 환급 예산 15억 6천만 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국산 수산물 매출이 5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물명품과학국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역세권 공급 속도

휴먼타운2.0 3곳 특별건축구역 지정 옥인·명륜3가·망우동 건축특례 적용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3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평역세권에는 2000여 세대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단지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원, 종로구 명륜3가 1-1061번지 일원,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원에 대한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과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신평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4건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휴먼타운2.0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다가

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중심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별 필지 단위 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에 건축 특례를 적용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옥인동 일대는 3만282㎡, 명륜3가 일대는 5만6494㎡, 망우동 일대는 1만4784㎡ 규모다. 구역 내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조경 기준 완화가 적용된다.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추가로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쳐 각종 건축 기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과 건축

협정 집중구역도 추가 지정해 휴먼타운2.0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평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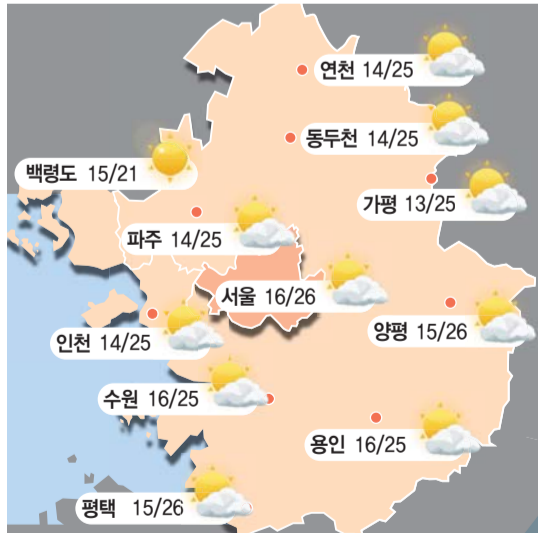
총 2054세대 규모로 공공주택 270세대와 분양주택 1784세대가 공급되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세대 내부의 거주성과 개방감을 높이는 설계를 적용하고 입주민 여가 공간과 피난 성능도 강화했다.

신평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대규모 역세권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1일 (목) 음력: 4월 26일

수도권 날씨 16~26°C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박용승 경희대 경영대학장 UN PRME 자문위원 선임

박용승 경희대 경영대학장(사진)이 유엔 글로벌 콤팩트 산하 책임경영교육 이니셔티브인 PRME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박 학장이 2026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3년간 PRME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10일 밝혔다. PRME는 경영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글로벌 경영교육 이니셔티브다. /이현진 기자

용인특례시, 풍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선정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선정 2027년부터 2년간 사업 추진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727번지 일원 20만7890㎡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억5000만 원(도비 3억7500만 원·시비 3억7500만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풍덕천, 새로운 매력에 스며들다!!"를 비전으로 주민과 상인,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체류형 생활문화 상권 조성에 나선다.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콘텐

츠를 발굴하고 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인 풍덕천동 727번지 일원은 수지구 중심 생활권에 위치해 수지구 청역과 인접한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흥·숙박시설이 밀집해 있고 보행환경과 상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 조직화와 상권 운영 역량 강화, 특화가로 조성 기반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 ▲美·이란 군사충돌에도... 밴스 "합의 매우 근접해"
- ▲예멘 장기 정전사태 향의 시위 중 보안군 발포로 1명 죽고 여러 명 부상 /사진 뉴시스

- ▲우주로 확대되는 중-러 협력... 中, 달 뒷면 채취 샘플 공유
- ▲TSMC "인플레이에 비용 올랐다"... 반도체 칩 가격 인상 가능성 시사

- ▲中 "시진핑 방북, 북-중 양국 관계에 이정표적 의미"
- ▲17년간 900차례 비행한 기장이 '무면허'... 에어캐나다 '발각'



외국인 몰리는
백화점·아웃렛
실적호조 기대감
L1



Life

월드컵 열기에
매출 띄운다
유통가 프로모션
L2



액상에 알약 더해 '활력 가득' 이중제형으로 비타민공식 새로 썼다

한때 피로 해소의 대명사가 박스 채 사는 드링크제나 한 통 가득 담긴 알약 비타민이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현대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이다. 갈색병 액상에 알약 두 알이 뚜껑에 얹어진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오쏘몰(Orthomol)'이다. 오쏘몰은 국내 출시 직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단숨에 국내 멀티비타민 시장을 점령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동아제약 '오쏘몰'

오쏘몰의 탄생은 독일의 장인 정신과 철저한 과학적 설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브랜드 명인 오쏘몰은 '올바른'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르토(Ortho)'와 '분자'를 뜻하는 '모레큘러(Molecular)'의 합성어다. 인체에 존재하는 미량영양소를 균형 있게 배합해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건강을 유지한다는 '분자교정학'이 반영됐다.

동아제약은 독일 오쏘몰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020년 국내에서 브랜드 대표 제품으로 '오쏘몰 이문'을 선보였다. 한국인 식습관을 고려한 성분 강화를 거쳐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성과를 냈다. 출시 첫해인 2020년 87억원이었던 매출은 2021년 284억원, 2022년 62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오쏘몰의 메가히트 비결은 기존 시장의 문법을 파괴한 차별화 전략에 있다.

가장 큰 혁신은 '이중제형'이라는 복용 경험이다. 물 없이도 상큼한 오렌지맛 액상 제형과 뚜껑 속 정제 2정을 동시에 섭취하는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고농축 영양제를 먹는다'는 심리적 만족감과 효능감을 모두 선사했다.

마케팅 전략 역시 영리했다. 동아제약

액상에 알약 더한 '프리미엄 비타민' 독일 오쏘몰사 파트너십 통해 국내로 한국인 식습관 고려한 성분으로 강화

이중제형으로 만족감·효능감 다 잡아 활력·건강 전하는 선물브랜드로 인기

성별 맞춤 멀티비타민 등 제품 다변화 물 없이 녹여 먹는 가루형 제형 선택 편의점 입점 확대... 접근성까지 제고



오쏘몰 바이탈M, 바이탈F.



'오쏘몰 이문 ODP'

/동아제약

은 오쏘몰을 '선물 가치'를 담은 고급 브랜드로 내놓았다. 백화점 내 매장을 중심으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해 나갔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흔히 주고받던 정형화된 선물 대신, 소중한 사람의 '활력과 건강'을 세련되게 선물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 요구를 정확히 꿰뚫은 것이다.

국내 최대 헬스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을 비롯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는 젊은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했다. 유명 아티스트, 만년필 브랜드 라미 등 유명 브랜드와 협업한 한정판들은 오쏘몰을 가장 트렌디한 선물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2023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올인원 멀티비타민 '바이탈M'과 '바이탈F'로 제품군을 추가해 전방위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기도 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일각에서는 오쏘몰의 급성장 이후 해당 시장 내 경쟁에 따른 숨고르기를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동아제약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오쏘몰 브랜드 매출은 2023년 1204억원, 2024년 1302억원을 올렸고 2025년 1194억원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3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30억원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메가히트 브랜드의 저력은 '위기 관리'와 '끊임없는 혁신'에서 나온다. 동아제약은 오쏘몰 브랜드 다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들어 품목 수 확대, 제품군 강화 등을 가동하고 있으며 5%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동아제약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취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올해 4월 공개한 '오쏘몰 이문 ODP(구강용해가루)'다. 기존 액상 및 정제 형태의 이중 제형에서 벗어나, 물 없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여 먹는 형태를 갖췄다.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신규 제형을

처방한 것이다. 오쏘몰 이문 고유의 완벽한 미량영양소 배합 설계를 고스란히 이식하면 서도 섭취 편의성은 높였다.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 직장인, 수험생 등은 물론 기존 알약이나 캡슐 제형을 삼키는데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들까지 모두 아우른다.

다만 워낙 고농축 제품인 만큼 복용 시 주의할 점도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오쏘몰 이문 ODP는 기존 '오쏘몰 이문'과 동일한 영양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제품"이라며 "두 제품을 함께 복용하기보다는 개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하나의 제품을 선택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 접근성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CU, GS25 등 주요 편의점에 '오쏘몰 이문 1일분'이 입점해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피로한 아침 출근길이나 야근 직전 근처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오쏘몰은 국내 판매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꾸준히 공고히 하고 K건기식의 성장을 지속해서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동아제약의 헤리티지에 독일의 과학 기술이 더해져 완성되고 있는 오쏘몰 스토리는 메가히트 상품이 가져야 할 혁신의 DNA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metro



▲손흥민, 아후스포츠 선정 '북중미 월드컵서 주목할 26인'
▲홍명보호, 북중미 월드컵 1차전 '붉은 유니폼' 착용...체코는 흰색 /사진 뉴스스

▲홍명보호의 여유...체코전 전날 경기장 '잔디 적응' 안 하기로
▲이정후, 韓 빅리거 최장 17G 연속 안타 신기록...타율 0.335 단독 2위

▲799승에서 멈춘 롯데 김태형 감독... '5연패' 지독한 아홉수
▲'변형 스테이블포드 강자' 배용준, KPGA 클래식 2연패 도전

SAMSUNG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2026. 06. 08 ~ 07. 05



구매금액
20%

제품 구매 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증정

소상공인과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동일 품목당 2대까지 신청 가능, 데이코, 허만, 소모품, 액세서리 등 일부 제품 제외
*이동통신사 구매 제품은 모델별 정액으로 지급 (모델별 지급금액은 삼성닷컴에서 확인)

K-Hero 혜택

30%

국민께 봉사하는 K-Hero 분들께 (군인 및 경찰·소방·교정공무원)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10% 추가 혜택

*삼성전자 패밀리룸에서 대상 모델 구매금액의 10% 추가 혜택 (구독 제외)

구독료 지원 **6개월**

AI 구독클럽 6개월 구독료를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로 지원

*PC/Tab/모니터 4년, 로봇청소기 5년, 그 외 TV 및 가전품목 6년 가입 한정 (스마트폰 제외)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을 참조해주세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